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기관지

FAITH &
LIFE

신앙과 삶

7+8
JUL + AUG
2023 vol.25



특집
소장학자 :
나의 신앙, 나의 학문
 소장학자들이 한국교회에 드리는 기도편지

사람 사이 소장학자 : 나의 신앙, 나의 학문

청년 시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산다는 것에 대한 고민과 실마리

문화로 세상 보기 몽상가로서의 학자와 공몽이라는 가치

ISSN 2671-8731



Contents

JULY + AUGUST · 2023

시선

호모 나랜스와 호모 커넥투스 사이에서 | 안승범 02

편집장의 말

땅에서 하늘의 길을 걷는 젊은이들의 이야기 | 윤현준 04

특집

소장학자 : 나의 신앙, 나의 학문

하나의 인격, 두 개의 관점 | 엄동한 06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 도쿄에서 서울로 또 대전으로 | 고철웅 08

민족을 위한 로켓공학자 | 이창훈 10

'기독교문화콘텐츠학'을 통한 하나님 나라 문화의 확장 | 김태룡 12

피상을 넘어 저변으로 | 임상희 14

아름다운 지성, 충만한 영성을 향해 | 서나영 16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과학교육을 향하여 | 김홍빈 18

기독교와 대중문화, 그 사이의 길 | 유지윤 20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 신앙, 삶, 학문 | 정문선 22

창조주를 '보도록' 이끄신 연구 : 프랑스어 읽기교육 | 홍승현 24

성경적 '진리'를 향한 열정은 그 소유를 반드시 담보하는가? | 홍성욱 26

선지자적 비관주의: 소멸의 시대, 한 줌의 희망을 찾아 | 김반석 28

사람 사이

소장학자 : 나의 신앙, 나의 학문 30

섬김의 자리에서

무한 경쟁의 사회 속에서

여전히 찬송할 수 있는 소망을 노래하자 | 조예상 38



2023. 7+8월호 | 제24호(통권 240호)

〈신앙과 삶〉은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기관지로서 회원 간의 교제와 나눔의 장으로, 우리 시대 문화와 사회의 정신적 토대를 성찰하고, 그 안에 배어 있는 반기독교적 요소들을 경계하며, 기독교 세계관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 쓰임 받고자 합니다.

후원 국민은행 602-01-0667-971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청년, 삶을 고민하다

청년 시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산다는 것에 대한 고민과 실마리 | 고성중 40

문화로 세상 보기

영화를 보다

몽상가로서의 학자와 공몽이라는 가치 | 이수향 42

미술을 보다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 장윤희 44

책을 보다

기독교 세계관 교육의 개념적 틀을 위한 기초 | 김수홍 46



교회 路

나들목하늘교회 기독교 세계관 교육 소개

나들목하늘교회, 계속되는 신앙과 삶, 통합의 꿈! | 신호기 48

소감문 : 전혀 다른 공동체, 나들목하늘교회 | 정승진 49

온전한 지성

헤르만 도어베르트의 기독교 세계관(4)

'법과 피조물'의 의미 | 최용준 50

소식

사무국 소식 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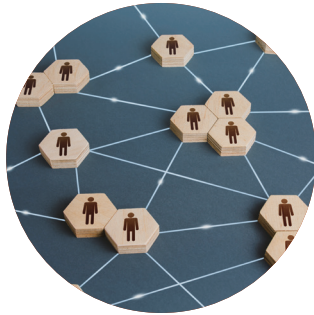
관련기관 소식 53

재정보고/후원자보고 54



호모 나랜스와 호모 커넥투스 사이에서

안승범 (경희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실행위원)



서사학(narratology)을 공부하며 인문학도의 삶을 다짐하던 무렵, 종로는 일상의 낭만과 연구 아이디어가 샘솟는 곳이었다. 이후 중각역과 종로3가역 사이에서 시간을 탕진하는 생활이 발명되었다. 중각역 옆에는 종로서적 등이 있었고, 종로2가에는 허리우드극장, 시네코아가 있었다. 종로3가에는 단성사, 피카디리극장, 서울극장이 있었다. 그 무렵 시에 취하고, 음악에 울고, 소설로 무너지고, 영화로 잠들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해하게 됐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좋은' 소설과 영화일수록 삶에 대한 전망을 복잡하게 한다고 느꼈다. 평소 품고 있던 이런저런 질문에 명쾌한 답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이것들은 오히려 더 큰 질문에 가닿게 하는 도구였다. 살면서 겪은 자살한 곤경을 떨치려 영화관에 갔다가 무지막지한 혼란에 처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소설과 영화에도 하나님이 감춰두신 편지가 있다는 사실은 시간이 더 지난 뒤 알게 됐다. 이야기 세계를 살아가는 인물들은, 현실 세계 속 평범한 이웃들보다 극단적인 공포와 환희, 절망과 희망 사이를 오갔다. 그

들의 삶을 내 삶인 양 전유하고 나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낙차가 보였다. 새벽 예배당 구석에서 숨죽여 흐느끼는 할머니 권사님의 삶을 더 잘 헤아릴 수 있었다. 완전한 합일애의 약속이 있는 신화적 사랑에서 방금 추방당한 이의 처진 어깨가 더 잘 보였다.

그런 어떤 순간에 성경이 다시 읽혔다. 형편과 모양이 다른 모든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세심한 스토리텔링이 거기에 있었다. 비틀즈 이후 새로운 팝이 가능하다고 묻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의 화법을 빌려 말하면, 성경을 제대로 경유하고 나면, 그 이상 완전한 이야기란 불가능하다. 오래도록 살아남은 이야기의 대표적인 유형은 '성장', 혹은 '모험'의 플롯을 따르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모세, 야곱, 요셉, 다윗과 같은 인물들의 이야기는 그 자체로 '성장 서사'와 '모험 서사'가 극적으로 착종된 형태다. 하나님은 우리가 쉬이 몰입하고, 공감할 수 있는 플롯을 따라 자신의 형상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장 내밀한 스토리텔러가 되신 분이다.

세상을 이야기로 보기 시작하면, 우리가 '호모 나랜스'(Homo Narrans)란 사실을 알게 된다. 실제로 신

경생물학, 뇌과학, 인지과학, 심리학 분야의 연구성과를 모아보면, 인간은 분절적인 시간 단위로서 에피소드들을 엮어 자기 경험을 조직하는 인지적 과정을 반복하며 살아간다. 인간이 행하는 정신 활동의 기저에 '서사 충동'(narrative drive)이 존재하는 것이다. 폴 코블리(Paul Copley)는 스토리아말로 세계를 사유하는 근본 방식이라고 말하고, 테오도르 사빈(Theodore R. Sarbin)은 서사를 타인과 소통하기 위한 '근본적인 은유'로 설명한다. 것처럼 인간은 은연중에 서사 구조에 따라 지각하고, 상상하며 도덕적 선택을 내린다.

그 연장선에서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의미 있는 만남이란 한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를 만나 각자 새로운 이야기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획득하는 사건이다. 우리는 세계를 끊임없이 이야기화하여 받아들이고, 나를 주인공으로 하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갱신하며 살아간다. 지금까지 내가 밝힌 이야기의 다음 순간에 대한 긴장감 있는 기대와 예측을 즐기며 오늘을 건넌다.

개인적으로 박사과정에 들어간 직후부터 소설과 영화뿐만 아니라, 애니메이션, 게임, 웹툰 등 세상에 존재하는 서사물, 이른바 스토리콘텐츠를 횡단하며 살았다. 디지털 시대가 전면화되면서 이야기는 끊임없이 다른 매체로, 새로운 장르로 분화되고 있다. 우리는 국가, 민족, 인종, 지역 등의 경계가 거의 소멸된 미디어 수용 환경에서 순식간에 글로벌 콘텐츠가 되는 사례들을 빈번하게 만나는 중이다. 일부 콘텐츠는 세계인의 화두가 되어 글로벌 비평장을 뜨겁게 달구기도 한다. 세계인이 '호모 커넥투스'(Homo Connectus)가 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오늘날 스토리콘텐츠를 기획·비평하는 공부를 한다는 건, 결국 호모 나랜스이자 호모 커넥투스로 살아가는 세계인을 이해하는 일이다. N스크린 시대가 되면서 그들은 언제든지 접속 가능한 스크린을 통해 위로

와 공감을 얻고 지식을 구한다. 국경 안팎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을 실시간으로 기도하고, 마음은 가깝지만 몸은 멀리 있는 지인들과 일상을 공유한다. 현금 대신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신용카드만큼 스마트폰 간편결제를 이용한다. 원격근무, 화상회의는 이미 일상화되었고, 인터넷쇼핑, 인터넷 बैं킹이 없는 세상은 상상하기조차 어렵다. 이제 책도 구독경제의 대상이 되어 스크린 위에서 스트리밍된다.

언젠가 보드리야르는 디즈니랜드를 두고, 미국 전체가 사실상 디즈니랜드라는 것을 감추기 위해 존재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렇다면 일상에 넘쳐나는 물리적 스크린들은, 우리 사회 전체가 거대한 스크린이라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지금 이 시간에도 스토리콘텐츠 선택의 주도권과 향유의 자율권을 쥐고, 우리 이웃이 OTT(over-the-top) 플랫폼에 접속해 있다. 그들에게 "구별하고 단절하라", "경계하고 싸워라"라는 조언이 반드시 옳은 건 아니다. 장성한 그리스도인에게는 "분별하고 해석하라"라는 말, 그와 아울러 "접속하고 대화하라"라는 말이 공유되어야 한다. 앞으로도 무수한 스크린을 통해 나와 너 사이에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쏟아질 것이다. 할 일은 많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원하는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FAITH & LIFE**



글쓴이 안승범

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K-컬처·스토리콘텐츠연구소 소장이다. 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했다. 영상콘텐츠를 중심으로 스토리텔링을 연구하며 시인이자 영화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서울동안교회에서 집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실행위원으로 섬기고 있다.

땅에서 하늘의 길을 걷는 젊은이들의 이야기

윤현준 (숭실대 기계공학부 교수, 실행위원)

살롬! 이번 <신앙과 삶>은 '소장학자: 나의 신앙, 나의 학문'을 주제로 한 특집호입니다. 신앙과 학문, 영성과 지성의 통합을 위해 각자의 전공 영역에서 고군분투하는 그리스도인 소장학자들이 한국교회에 드리는 기도편지이기도 하지요.

<시선>에서 안승범 교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플롯을 따라 자신의 형상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장 내밀한 스토리텔러가 되었다고 합니다. 신앙의 이야기가 세상의 이야기와 만나 새로운 이야기로 나아가는 상상을 해 본다면, 기독교 세계관적 학문은 “분별하고 해석하라”는 말과 “접속하고 대화하라”는 말이 공유되는 현장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특집> 첫 꼭지에서 염동한 박사님은 '이론물리학자'로서 세상을 '신앙과 과학'이라는 두 개의 관점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하면서도 하나의 인격인 하나님의 인격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삶을 꿈꿉니다. 고철웅 박사님은 사람이 법적으로 인격권을 가지게 되는 '민법학'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인격을 부여하신 신학을 흥미롭게 비교합니다. 이창훈 박사님은 '로켓 유도제어 알고리즘' 개발이 살상용 미사일처럼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곳에 쓰일 수 있다는 사실에 부담을 느끼면서도, 외계 행성을 관측하기 위해 쏘아 올린 우주망원경의 관측 정보로부터 창조주의 개입을 확신

하게 되는 등 '신앙과 학문' 사이의 긴장을 전합니다. 김태룡 박사님은 '기독교문화콘텐츠'를 연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일반은총으로 주신 대중문화이론을 재정립하고 이를 기독교 학문의 일부로 삼는 비전을 나눕니다. 임상희 박사님은 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을 가정하지 않고도 우주의 모든 기원을 '현대물리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식으로 창조하셨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마치 인간과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계시 방식을 놓고 고민해온 기독교 신학과도 같다고 합니다.

서나영 박사님은 '기독교예술학'이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영역이며,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재탈환해야 하는 잃어버린 영토라고 고백합니다. 김홍빈 박사님은 '과학교육'을 통해 과학의 대단한 측면과 인간의 한계를 균형 있게 조명하고, 학생들은 '과학-인간-자연' 너머에 더 큰 실재인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유지윤 박사님은 '대중문화'를 단순히 유희나 소비의 대상이 아닌 진지하게 들여다볼 대상으로 대하고, 그 안에 담겨 있는 메시지를 스스로 읽어낼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를 것을 조언합니다. 정문선 박사님은 '공교육' 분야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소망을 전하며,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교육이 아닌 삶의 이상을 볼 수 있는 교육을 강조합니다. 홍승현 박사님은 안구운동 추적기를 활용

하여 '프랑스어 읽기 교육'을 인지심리학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연구를 통해 창조주 하나님의 정교한 손길을 증언합니다. 홍성욱 박사님은 '우주론' 연구가 창세기 신앙과 자연과학이 서로 화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김반석 선생님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 걸쳐 종말론적 경고가 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과학도'들이 선지자적 비판주의를 가지고 환난 끝에 다시 도래할 희망을 외치는 자들이 되는 비전을 품습니다.

〈사람 사이〉는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손봉호 명예 이사장님과 소장 학자 김셋별, 박정우, 윤현준, 조지혜 박사 사이의 대담으로 기획되었습니다. 이번 대담이 각자의 전공 영역에서 주어진 소명을 묵묵히 감당하고 계신 분들에게 많은 격려와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섬김의 자리〉 조예상 청년 실행위원은 내 앞에 있는 경쟁자만 바라보도록 추동하는 무한 경쟁의 사회 속에서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가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등대의 역할을 감당하고 청년들에게 소망을 전할 수 있기를 제안합니다.

〈청년 시론〉에서 고성종 형제는 인류학의 다원주의적 관점이 포스트모더니즘을 연상케 하지만,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학문적 관심과 주류 문화에 대한 비판적 접근은 오히려 성경적이라는 통찰을 제시합니다.

〈영화를 보다〉에서는 이수향 박사님이 〈천문 : 하늘을 묻는다〉를 소개합니다. 〈미술을 보다〉에서는 비영리 예술단체 '엠카라' 장윤희 대표님이 기쁨 부음을 받은 예술가가 기도하며 예술이라는 수단을 통해 광야에 외치고, 우리 시대의 어둠을 알리고 시대를 바라보

는 올바른 가치관을 제시하며 회복시키는 사명을 선포합니다. 〈책을 보다〉에서는 김수홍 선생님이 핑크, 페르메일른, 쿤츠의 〈기독교적 가르침의 본질〉에 대한 서평을 해주셨습니다.

〈교회 路〉에서는 나들목하늘교회의 신호기 목사님께서 신앙과 삶의 통합을 꿈꾸는 기독교 세계관적 목회를 소개합니다. 특히 '기독교 세계관 교육'을 수료한 정승진 선생님이 예배의 초점이 '설교를 통한 배움'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로 옮겨졌다는 벽찬 감동을 소감문을 통해 나눠주셨습니다.

〈온전한 지성〉에서는 최용준 교수님께서 네 번째로 도여베르트의 기독교 학문 이론을 소개합니다. 창조주의 초월성과 내재성을 동시에 인정하며 균형을 맞추는 것이 인본주의적 세계관과 철학 분별에 중요함을 일깨워줍니다.

이번 특집호는 그리스도인 소장학자 모임에서 기획하였습니다. 소장학자들이 연구하는 하나님의 질서로서의 자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 등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성품이 온 인류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무더운 여름에도 특집호를 위해 수고해주신 필진과 편집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FAITH & LIFE**



글쓰기 윤현준

숭실대 기계공학부 조교수이다. 서울대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해 박사학위(Ph.D)를 받았고, 미국 조지아공과대 박사후연구원을 지냈다. 서울 정릉교회(예장 통합) 청년이며,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실행위원 및 〈신앙과 삶〉 편집위원으로 섬기고 있다. 공학 영역에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마 6:10) 역사에 참여하는 증인의 삶을 꿈꾼다.

하나의 인격, 두 개의 관점

염동한 (부산대 물리교육과 교수)



나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떠나지 않았다.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이 흔들려본 적이 결코 없었다는 말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론 물리학자로서, 연구자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설명하는 근본적인 법칙을 찾고자 하고, 또 다양한 이론들 사이를 헤집으며 어떤 이론을 적용하고 다른 이론을 비판하면서, 과학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과학자로서 이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과 신앙인으로서 이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조화될 수 있을까? 과연 하나님이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를 자연으로부터 찾을 수 있을까? 우리가 믿어왔던 신앙 전통의 해석들은 어디까지 검증할 수 있을까? 혹시나 학문적 성과와 우리의 믿음들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면, 나는 신앙인으로서, 그리고 과학자로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과학자가 기적을 믿는다는 것은 말이 되는가? 과학자가, 특히 이론 물리학자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과연 가능

한 것인가?

때때로 나는 의도적으로 내가 신앙인이 아니라면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게 될지를 깊이 생각해 보았다. 신앙인이 아니라면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게 될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해 보았다는 말이다. 이것이 나에게 솔직한 표현이다. 노력하지 않는다면, 내 말은 믿지 않는 나의 친구들에게 전혀 설득력이 없을 것이다. 내가 내 연구와 삶에서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궁극적인 답을 얻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잠정적인' 답을 만들어보려고 노력했다고는 생각한다.

첫째로, 이 세상은 그렇게 쉽게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얻었다. 아직 우리는 정합적이고 근본적인 자연법칙이 무엇인지 모른다. 우리가 결코 이 자연법칙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는 말은 아니다. 그러나 자연의 근본 법칙을 확인하기 위해, 우리의 인식의 한계에 접근하고 있다는 느낌은 피하기 어렵다. 또한 자연의 법칙을 알고 있다고 해도, 현재 우리가 보는 세

상을 개연성 있게 설명하기는 정말 쉽지 않다. 어쩌면 우리가 관찰하는 세상 너머의 어떤 것을 가정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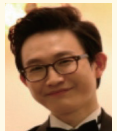
물제로, 우리가 성경의 '모든' 부분, 전통적으로 믿어 온 성경 해석의 '모든' 부분을 고고학적으로 검증할 수는 없을지도 모르고, 또 어떤 것들은 현재의 최신 연구 성과들과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급소'가 무엇인지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의 부활 사건이다. 우리는 예수의 부활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실존했던 것이 확인된 증인들의 목록을 가지고 있으며, 최초 목격자들의 증언도 확보하고 있다. 그들의 증언을 믿을 것인지 아닌지는 선택의 문제이지만, 그 증언을 믿지 않겠다고 하면, 왜 그들이 그런 기록을 남겼는지에 대한 개연성 있는 설명을 해야 할 것이다. 나는 지금까지 '부활의 증인'들의 증언을 "그들이 정말로 부활한 예수를 만났다"라고 해석하는 것 말고 좀 더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지 못했다.

아마도 내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서만 이 세상을 살아왔다면, 이러한 것들을 질문조차 하지 않고 살아갔을지도 모르겠다. 어쩌면 이러한 잠정적인 답이 아니라 좀 더 선명한 답을 하며 살아갔을지 모른다. 그러나 과학자의 정체성을 가진 신앙인이 신앙의 질문들에 맞닥뜨렸을 때, 그래도 '여기까지는' 고민해봤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몸부림도 때로는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한편, 필자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에게 한 마디 위로를 전해주고 싶다. 지금 당장은 그 문제를 다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모든 문제에 답할 수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지식으로 환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또 지금 당장 그 모든 문제에 답할 수 없다고 해서 신앙의 본질이 흔들려야 할 정도로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니더라는 것이다. 따라서 좀 더 여유와 인내심을 가지고 정직하게 탐구해 나가면 그것으로 괜찮다고 말해주고 싶다.

어떤 사람이 이 세상을 두 '인격'으로 살아가겠다고 한다면, 누구나 그러지 말라고 말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의 인격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 그러나 두 개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연습은 필요할지도 모르겠다. 이것은 신앙인으로서, 과학자로서, 두 가지 영역에 속하여 살아가면서, 세상을 두 개의 관점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하나의 인격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삶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FAITH & LIFE**



글쓴이 염동한

부산대학교 물리교육과 교수. KAIST에서 물리학을 전공(Ph.D)하였고, 카이스트 재학시절 기독교학동아리 RACS(Research Association for Creation & Science)에서 활동했다. 현재 일반상대론 및 양자중력이론에 관해 연구하고 있으며, 블랙홀과 우주의 기원에 관심이 있다. 자연의 근본 법칙과 우주의 기원,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 현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정회원, 등재 학술지 <신앙과 학문> 편집위원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 도쿄에서 서울로 또 대전으로

고철웅 (한남대학교 법학부 교수)



대학생 때까지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나는 군대를 제대한 후 석사 1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 같이 일본에 유학 중이던 한국인 형제의 인도로 제일 대한기독교교회 소속 동경중앙교회에 출석하게 되었다. 임태호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고,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방식이 법전을 읽고 해석하는 방식과 비슷하여 흥미를 느꼈다. 또한 주말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교인들과 한국 음식으로 점심식사 교제를 나누는 것이 유학생에게는 큰 기쁨이었다. 청년들이 많이 참석하는 오후 찬양예배에서는 찬양대로 섬기었는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할 수 있었다.

주변에서는 종종 그리스도인 비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일본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에 대해 궁금해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 나의 경우 교회를 다니게 된 계기도 물론이지만, 석사 논문 주제 선정 때부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인도해 주셨다. 석사 논문

을 고민하며 기도하던 시기인 2008년, 때마침 “민법상 ‘제사주제자’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해 중요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기에 일본 판결과 비교하는 논문을 작성할 수 있었다. 이 주제를 통해 종교와 법이 우리 생활에서 어떻게 개입하는지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박사과정 때에는 인격권이라는 주제를 통해 우리의 인격이 일상생활에서 법적으로 어떻게 보호되는지 그 과정을 한국, 일본, 프랑스의 경험을 통해 살펴보았다. 인격권은 19세기 말부터 등장한 용어지만 인간의 존엄 및 개인의 존중 사상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20세기 중반 이후 논의가 많이 된다. 사람이 어떤 이유에서 법적으로 인격을 취득하고 인격권을 가지게 되는지는 민법학에서 고민해야 할 연구 주제이지만, 신학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인격을 부여하셨기 때문이라는 이미 답이 나와 있는 문제이다. 신앙의 선배들이 이 문제를 이미 많이 고민하였기에 후학으로서 이 부분을 앞으로 잘 배우고 싶다.

박사학위를 받은 뒤, 리트코대학 법학부에서 2년 반 근

무하였다. 릿쿄대학은 영국 성공회 계열의 대학으로서,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로 유명한 한국의 운동주 시인이 유학했던 대학이다. 교원 임용식을 큰 오르간이 있는 채플에서 했던 점이 인상적이었다. 원래는 3년간 근무 예정이었으나, 도중에 한국 대법원에서 근무하게 되었기에 2년 반 만에 귀국하게 되었다. 15년간의 일본 유학 생활 동안 내 삶의 달란트를 일본에서 써도 좋지만 한국에서 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하고 기도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 것이다.

대법원에서는 4년 반 동안 근무하였다. 대법원 내에서도 기독교 관련 모임이 있어 직장에서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다. 이동원 대법관이 참석하는 대법원기독교신우회(1995년 12월 27일 창립, 설교: 산정현교회 김관선 담임목사님) 예배에서 총무 역할을 맡아 섬기었고, 재판연구관 기도 모임도 참석하였다. 직장에서도 신우회 등으로 섬기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사실에 놀랐고, 직장동료들과 주 안에서 함께 교제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주일은 상도중앙교회(설교: 박봉수 위임목사님)에서 찬양대로 섬기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한창 창궐하던 2021년 3월에 대전에 있는 한남대학교 법학부에 부임하게 되었다. 법원에 있을 때는 대학교로 다시 돌아가서 연구할 수 있도록 기도드렸지만, 전국의 많은 대학교 중에서 기독교 대학으로 부임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한남대학교는 미국 남장로회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로서 하나님 말씀과 선교사들의 정신을 바탕으로 지금도 기독교 전통을 잘 지켜나가고 있다. 성경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진리·자유·봉사를 목표로 하여 학생들을 섬기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한남대학교는 '봉사'를 특히 강조하고 있다. 대학에서는 대학수요예배, 피테개인

전도회, 학과신앙공동체 등에서 동역자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갖고 있다.

피테개인전도회는 한남대에서 봉직하셨던 피테 선교사님의 개인전도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교직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모임이다. 학과신앙공동체에서는 같은 학과 내에서 기독교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1주일에 한 번 함께 모여 독서토론을 하고 있다. 이 모임을 통해 신앙을 가지게 되었고 교회를 다니게 되었다는 학생의 신앙고백을 듣게 되어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다시금 감사하게 되었다. 학교 밖에서는 석종준 목사님의 섬김 아래 세워지고 있는 기독교학문연구회 소장학자 모임을 통해 다른 학문 분야 학자들과 독서모임 등을 통해 기독교에 대해 함께 공부하고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대학이 여러모로 쉽지 않은 환경에 놓여 있지만, 학생들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는 것을 꿈꾸며 오늘 하루도 앞으로 나아가길 다짐해 본다. **FAITH & LIFE**



✍ 글쓴이 고철웅

한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무법학전공 교수 및 학과장이다. 일본 히토츠바시대학 법학과를 졸업했고 도쿄대학교에서 민법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릿쿄대학과 대법원에서 연구하였다. 최근 관심사는 '인간의 존엄과 인격권', '법과 종교'이다. 동경중앙교회, 상도중앙교회를 섬기고 있으며, 학과신앙공동체에서 학생들의 신앙과 성장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민족을 위한 로켓공학자

이창훈 (KAIST 항공우주공학과 교수)



내가 태어나고 자라온 곳은 전라남도 장흥군 회진면 '정남진'(正南津)이라고 불리는 바닷가 시골 마을이다. 요즘은 소고기, 키조개 판자, 표고버섯을 함께 구워 먹는 '장흥삼합'이라는 음식으로 '장흥'이라는 지명을 들어 본 사람들이 제법 있지만, 대학교 시절 '장흥'에서 왔다고 하면 주변 친구들이 어리둥절할 만큼 잘 알려지지 않은 외진 곳이었다. 비록 반 친구들의 가족이름을 모두 외울 수 있을 만큼 소규모의 시골 학교를 다녔지만, 좋은 신앙과 교육에 남다른 열정이 있었던 부모님 덕분에 부족함 없는 환경에서 자랄 수 있었다. 이는 가난 때문에 당시 '국민학교' 졸업 이후 배움을 멈춰야 했던 본인의 아픔을 자식들에게는 대물림하지 말자는 부모님의 다짐이 있었기에 가능했으며, 그런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서인지 우리 삼남매는 일찍 철이 들었고 어찌다 보니 현재는 고등학교 교사, 초등학교 교사, 대학교수 등 모두 교육자의 길을 걷고 있다.

내가 항공우주공학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중학교 2학년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청소년

잡지에서 읽었던 '현무 지대지 로켓'을 개발한 과학자의 헌신적인 삶의 스토리에 감동받았고 당시 '민족을 위한 과학자'가 되기를 늘 기도하셨던 가족들의 바람대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로켓공학자가 되는 것을 내 삶의 소명으로 삼게 되었다. 운이 좋게도 중학교에 진학할 때쯤 'SBS'가 시골에도 보급되어 당시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드라마 KAIST'에서 항공우주공학 분야를 접할 수 있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KAIST 항공우주공학과 진학을 목표로 삼게 되었다. KAIST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과학고를 진학하는 게 유리하다고 적혀진 백과사전에 적힌 글귀를 보고 무작정 지역에 있는 과학고를 먼저 알아보게 되었고, 과학고 진학 후 그토록 원하던 KAIST 항공우주공학과에 진학하여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지금에 와서 뒤를 돌아보면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었으며 참으로 철이 없었던 철부지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들어주셨고, 모든 걸음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분명히 보이심으로써 나의 노력으로 인한 교만한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늘 단속하셨다. 선교단체에서 훈련받았던 학부생 시절, 동

남아 지역에서 항공우주공학 전공자가 전문인 선교사로 활동하기 용이하다는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선교사로서의 부르심에 대해서도 고민해 본 시기가 있었으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나를 현재의 자리로 인도하셨다.


나는 현재 항공우주 분야의 기술을 개발하고 학생들을 양육하는 연구자 및 교육자의 길을 걷고 있다. 여러 항공우주 분야 중 나의 전문분야는 '로켓의 유도제어 알고리즘'이다. 이 분야는 해외로부터 기술도입 및 협력력이 불가능하여 자체 개발이 필요하며, 국방 분야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학술적/기술적 혁신이 요구되는 분야이다. 민족을 위한 로켓공학자의 소명을 가지고 시작한 이 일이 살상용 미사일에 적용되거나 창조질서에 반하여 외계생명체를 탐구하는 '우주발사체'에 활용되는 등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곳에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이 늘 마음의 부담으로 작용해오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해당 기술의 발전이 '팍스 로마나'(Pax Romana) 시대처럼 힘의 균형에 의해 평화가 유지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목격하고 있다. 또한, 외계 행성을 관측하기 위해 쏘아 올린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관측 정보로부터 창조주의 개입 없이는 우주에 대한 경이로움을 설명할 수 없다는 확신을 점차 갖게 되고 있다. 이렇듯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연구에 임하고 있다.

나는 이제까지 내가 하는 항공우주 분야 연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비전과 꿈이 있었으며, 자연스럽게 나의 직업과 나의 연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과연 부합하는지에 대해 오랫동안 고민을 해왔다. 최근에서야 거기에 대한 답을 제럴드 시처(Gerald L. Sittser) 교수님이 쓴 <하나님의 뜻>(성서유니온)이라는 책에서 얻을 수 있었다. 우리는 앞으로의

진로나 계획의 방향을 놓고 하나님의 뜻인지를 고민하게 되는데, 이러한 선택보다는 매일 매일의 순간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의 모양대로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부합된다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현재 내가 이루고자 하는 비전과 꿈이다.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겨준 15명의 석/박사과정 학생이 있다. 교수라는 직업은 권위를 통해 학생들을 통제하고 나의 책무를 학생에게 전가하고자 하는 달콤한 유혹에 빠지기 쉬운 직업이다. 이러한 유혹으로부터 벗어나 예수님께서 그랬던 것처럼 학생들을 섬기고 인격적으로 대하기 위한 모든 삶의 모습이 곧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삶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그리고 "교수가 몸 고생을 하면 학생이 편해진다."라는 말을 몸소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요즘 하나님께서 나의 역할을 직접 연구하는 연구자에서 학생들의 연구를 지원하는 조력자로 바꾸시는 손길을 느끼고 있다. 마치 모세 시대에서 여호수아 시대로 출애굽의 소명이 전달된 것처럼 나보다 재능 있고 뛰어난 연구 능력을 지닌 학생들을 우리 연구실에 보내주셔서 학생을 통해 연구하는 즐거움, 학생을 독립적인 연구자로 성장시키는 즐거움을 느끼게 하고 있다. 나는 나의 연구 분야에서 하나님께서 맡겨 준 학생들이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섬기는 것을 새로운 나의 소명으로 생각한다. **FAITH & LIFE**



 글쓴이 이창훈

KAIST 항공우주공학과 교수이며 비행역학 및 제어 연구실을 운영하고 있다. KAIST에서 항공우주공학 박사를 취득했으며, 국방과학연구소 및 영국 크랜필드 대학에서 근무하였다.

‘기독교문화콘텐츠학’을 통한 하나님 나라 문화의 확장

김태룡 (경희대 K-컬처·스토리콘텐츠 연구소 학술연구교수)



나는 현재 경희대학교 K-컬처·스토리콘텐츠 연구소에서 학술연구교수로 재직하며 문화콘텐츠와 한류를 연구하고 있다. 사실 석사학위를 받을 때까지도 학자의 삶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저 개인적인 관심사를 따라 지식을 쫓다 보니 학계로 들어서게 되었다. 학부 시절 음악을 전공했었기에 한국 ‘힙합’에 대한 연구로 석사학위를 받았고, 연구활동에서 느꼈던 즐거움의 지속을 기대하며 문화콘텐츠학과에 박사과정으로 입학하게 되었다. 막연하게 박사과정을 시작하게 되었지만, 마음 한편에는 학문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늘 자리하고 있었다. 이것은 나의 공부 방향 및 진로와도 관련된 문제였다.

그러던 중 나의 지도교수님께서 ‘기독교문화콘텐츠’를 학문적 방향으로 제시하여 주셨다. 사학자 출신이신 지도교수님께서서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종교적 정체성을 배려해 주신 것이다. 이후 나는 문화콘텐츠학의 논의를 기독교 문화의 영역으로 끌고 들어오기 위한 고민을 시작하였다. 내가

전공하였고 현재 연구하고 있는 문화콘텐츠학은 인문학을 기반으로 미디어에 담긴 혹은 담길 문화적 내용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다. 미디어의 특성과 수용자의 향유, 그리고 산업적 활용을 고려한 채 어떻게 인문학적 가치를 지닌 콘텐츠를 기획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는 것이 문화콘텐츠학의 주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나는 이러한 관점을 적용하여 기독교 세계관으로 문화콘텐츠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기독교적 가치를 담은 문화콘텐츠를 어떻게 기획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모색하였다. 그 과정에서 성경의 이야기를 소재로 삼은 테마파크를 분석하여 박사 논문을 작성하였고 CCM, 유튜브, 연극, VR 등과 관련된 기독교문화콘텐츠 관련 논문들을 발표하였다.

현재 한국연구재단에서 주관하는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A 유형’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 연구과제 역시 성경의 이야기를 VR로 구현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다. 나의 소망이자 계획은 이러한 연구를 지속하여 기독교 문화와 관련된 실용적인 지식을 생산하는 것이

다. 그리고 논문 발표와 강의를 통하여 확산시킬 수 있을 바라고 있다. 이를 통해 침체되어 있는 한국교회와 기독교 문화를 발전시키는 일에 기여하는 것이 나는 학자로서의 목표이자 비전이다.

‘기독교문화콘텐츠’를 주된 연구 대상으로 삼게 되면서 여러 문제에 부딪히기도 하였다. 첫째는 학문의 세속화에 대한 의심이다. 과거 기독교학문연구회 학술대회에서 문화콘텐츠 스토리텔링 기획방법론의 기독교적 활용이 필요함을 거론한 바 있다. 그때 들어온 질문 중 하나는 기독교 문화의 기획에 있어 상업적인 방법론의 적용이 가한가에 대한 것이었다. 이에 대하여 기획의 의도나 목적이 죄로 오염될 수는 있겠지만 기획의 수단 자체는 선한 목적에 의해 사용될 수 있다는 말로 답변하였다. 나는 학문의 영역에서 순수하게 생산되는 지식 대부분은 일반은총에 속한다고 믿고 있다. 이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믿는다면 감사한 마음과 선한 뜻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앞으로도 이러한 학문적 ‘도구들’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올 생각이다. 이러한 노력이 지속될 때 기독교 문화가 성장할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둘째는 관점의 부조화이다. 특히 문화이론이나 한류를 공부할 때 많은 고민을 하게 된다. 문화콘텐츠 기획은 필연적으로 수용자들을 고려해야 하기에 현대 대중들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문화이론가들의 시각을 빌려야 할 때가 많지만 문화이론가들의 논의가 항상 기독교 세계관과 양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 주장의 합리적인 측면까지 배제하는 것은 진지한 학문적 태도가 아니라고 본다. 그 때문에 비판적 수용을 하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국원 선생님께서 〈변혁과 살롬의 대중문화론〉에서 주장하신 것과 같이 개혁주의 세계관을 활용하여 대중문화 이론을 재정립하고 이를 기독교 학문의 일부로 삼

아야 한다고 본다. 나의 학문 활동 역시 이러한 시도의 일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셋째는 연구 성향과 범위에 대한 오해이다. 내가 신학 전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연구 실적 목록에서 기독교와 관련된 키워드가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편협한 학문적 성향을 지닌 것으로 오해를 받기도 한다. 몇 년 전 모 대학의 교원 면접에서 ‘종교 관련 연구가 많다’라는 지적 섞인 질문을 받은 것이 대표적 사례가 되겠다. 내 연구는 광범위한 영역의 논의들을 끌어와서 기독교 문화에 접목한 것이기 때문에 결코 나의 학문 범위가 협소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실령 이러한 오해를 계속 받게 된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연구가 지금 우리 사회와 한국교회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고 있기에, 그리고 그것이 나의 사명임을 믿기 때문에 지속할 계획이다.

지금 내가 학자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은 모두 주님의 계획임을 믿는다. 지금 나의 삶에 상당한 만족감과 감사를 느끼고 있다. 앞으로도 나의 학문적 사명에 최선을 다하며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의 동역자 역할을 충실히 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FAITH & LIFE**



 글쓴이 김태룡

경희대학교 K-컬처, 스토리콘텐츠 연구소 학술연구교수이다.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문화콘텐츠학 박사학위(Ph.D)를 받았다. 현재 강의를 병행하며 기독교문화콘텐츠, 스토리텔링, 한류, K-pop 등을 연구하고 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샘물교회 집사이다.

피상을 넘어 저변으로

임상희 (기초과학연구원 연구원)

현재 나는 기초과학연구원의 이론물리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연구자다. 대학 시절부터 물리학을 전공했고, 대학원에서는 입자물리(elementary particle physics)와 우주론(cosmology) 연구를 통해 학위를 받았다. 입자물리는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최소 단위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연구하는 분야로 고대 그리스에서 ‘원자’(atom)라고 불렀던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물리적 실체를 규명하려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우주론은 현재 망원경으로 관측되는 우주가 어떤 과거 역사를 거쳐서 현재에 이르렀는지 탐구하는 학문으로 언뜻 보기에는 입자물리와 큰 상관없이 보이지만, 현대 우주론은 입자물리를 바탕으로 하는 소위 ‘초기 우주’(early universe)에 대한 이해로부터 발전되어 왔기에 매우 긴밀한 관련이 있다.

어려서부터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자랐던 나는 사실 대학원 시절에 이르러 전공 분야를 심도 있게 파고들기 전까지 물리학과 신앙 사이에 어떤 긴장을 느끼지는 못했던 것 같다. 자연 세계의 운동이 이렇게 단순한 수학적 법칙들로 설명이 된다는 사실이 재미가 있었고, 그러한 법칙들을 부여한 창조주가 존재한다는 신앙의 사실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다. 학부 시절까지 배웠던 물리학은 주로 우리가 현재 관찰할 수 있는 자연세계에 적용되는 법칙들에 관한 것이었다. 반면 대학원 공부에 이르자 좀 더 근본적인 질문들을 다루는 물리학을 공부

하게 되었다. 앞서 소개한 대로 입자물리는 우리 몸을 포함해서 모든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근원적인 입자를 찾고 그 입자의 운동을 통해 세계를 이해하려는 학문이다. 현대 우주론은 이 입자물리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초기 우주에 대한 수학적 이론을 만들었고, 이 이론은 현재 망원경으로 관측되고 있는 우주에서 지구로 날아오는 광선들을 매우 정밀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우주는 초기에 매우 고밀도로 응축되어 있던 에너지로 인해 공간이 확장되고 근본 입자들이 생성된 후 그 입자들이 서로 결합하면서 별과 은하를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생겨났고 이러한 과정은 약 140억 년의 시간이 걸렸다. 이처럼 현대 이론물리학은 우주의 기원과 만물의 근원에 대한 질문을 다루고 있기에, 신앙의 영역과 많은 접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지식들을 접하게 되었을 때 느껴졌던 가장 큰 긴장감은 물리학이 설명할 수 있는 영역이 너무 광범위해 보였던 것에서 비롯되었다. 우주의 시작에서부터 생명의 출현에 이르기까지 초자연적인 창조주의 개입이 없이도, 거의 모든 것을 정합적이고 개연성 있게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보였다. 영적인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실체의 근원은 물질이라는 소위 유물론과 자연주의 세계관은 바로 이러한 현대물리학의 발견에 의해 지지될 수 있는 것이었다. 물리학적 발견들과 지식들을 한계가 있는 것으로 치부하고 단순히 무시해버리는 것은,

광범위하고 정밀한 관측 데이터와 그 데이터들을 수치적으로 정밀하게 재현할 수 있는 물리 이론의 설명력을 볼 때 지성적으로 올바른 행동으로 보이지 않았다. 주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상황에 대해서 내릴 수 있는 최선의 지성적 판단을 과학은 행하고 있었다.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의문은 기독교의 하나님이 정말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왜 창조주의 개입을 가정하지 않고도 모든 것이 설명될 수 있는 방식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느냐는 것이었다.

감사하게도 대학원 시절 RACS(카리스트 창조론 연구회)라는 공동체를 만나 이 질문을 비롯하여 신앙과 과학의 관계에 대해서 함께 심도 있게 공부하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공동체 안에는 저마다 다른 의견과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과학연구를 통해서 창조주의 존재와 사역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곤 하던 사람도 있었고, 과학 이론과 지식의 한계라는 측면에 집중하여 불가지론적인 입장을 가졌던 사람도 있었으며, 과학 이론을 전반적으로 수용하면서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고 신앙을 이해해야 하는지의 문제에 중점을 두는 사람도 있었다. 사실 이 문제에 관한 복음주의 기독교공동체 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이해들을 다 어느 정도 대변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시간이 지나면서 형성된 나의 주관적인 견해로는 과학 이론과 지식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현재 주어진 증거들을 통해 사람이 내릴 수 있는 당대의 최선의 지성적 판단이라고 본다. 그 때문에 앞에서 언급한 대로 신앙에 따라 하나님의 창조를 받아들인다면 왜 하나님의 창조 행위가 과학 활동을 통해서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느냐는 질문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질문이기도 하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존재와 현재 우

리 삶에 관여하심을 믿지만, 누가 이것을 모든 이가 동의할 수 있게 객관적으로 증명해보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지는 못한다. 왜 하나님은 더 감각적 방식으로 자신을 우리와 모든 사람에게 계시하지 않는가? 이 질문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기독교 신학은 다양한 전통을 따라 여기에 답해왔다.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는 과정은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에 대한 이해를 깊이 있게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과학자로서 그리고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연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방식 그대로 탐구하면서 마주치게 된 세상은 이처럼 그리 간단하지도 호락호락하지도 않았다. 이는 마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생각할 때 단순히 예상하는 것처럼 순탄하고 좋아 보이는 일만 있지 않고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이 바로 이러한 고난에 관해 말하고 있고 하나님이 그것을 부활의 영광으로 이끌어가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는다. 하나님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학문의 자리에서도 이와 같은 진리를 보게 하였고, 이것은 개인적으로 삶을 대하는 태도에도 영향을 미쳤다. 어느 일터에서든지 주께 하듯이 진심으로 행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우리로 더 그분을 알게 하시고 깊고 풍성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믿는다. **FAITH & LIFE**



글쓴이 임상희

기초과학연구원 순수물리이론연구단 소속 연구위원이다. 카리스트 물리학과에서 학부와 석사과정을 마치고 입자물리이론으로 박사 학위(Ph.D)를 받았다. 현재까지 입자물리이론과 우주론을 계속 연구하고 있다. 카리스트 재학시절 기독교동아리 IVF와 RACS에서 활동했고,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정회원이다.

아름다운 지성, 충만한 영성을 향해

서나영 (총신대학교 및 미국 미드웨스턴신학교 객원 교수)

현대 교회는 ‘예배전쟁’(worship war)이라는 길고 긴 전쟁을 치러냈다. 종교개혁의 전통 아래, 하나님께서 받으실 합당한 예배에 관한 연구는 “교회 안 예술은 세상과 구별된다”라는 명제를 낳았으며, ‘일반은총’과 ‘특별은총’의 구별하여 가르치는 것도 잊지 않았다. 그러나 한 번도 ‘구별된 기독교 예술’의 경계선에 대해서는 일치한 적이 없었다. 이렇게 예술 영역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불가피한 긴장은 언제나 교회 건물의 벽을 넘나드는 순간 시작된다.

목회자의 자녀라는 이유로 교회의 모든 봉사와 사역에서 제외되어야 했던 나는 세상 속에서 재능을 쓰임 받는 꿈을 그리며 성장했다. 어린 나이부터 성경을 사랑하고 문학과 미술을 사랑했던 피아노 전공생인 나에게, 예술은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는 인생의 놀이터였다. 고난과 노력을 통해 작품을 완전하고 아름답게 완성하는 과정, 겸손과 순종을 이루는 자기 비움의 과정, 슬픔과 한숨이 기도 시와 노래가 되는 과정,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타락한 죄성 때문에 힘들어했고 구원의 기쁨 때문에 즐거웠다. 성경을 통한 삶의 진리를 예술 속에서 풍족히 누렸다.

미국에서 교회음악 공부를 하던 어느 날, 문학 및 음악학 박사이신 독일 출신의 여교수님이 나를 찾아왔다. 그녀는 ‘기독교예술학’ 박사과정에 추천하고 싶다

는 말과 함께, 그 어렵고 복잡한 학문의 세계로 나를 강권하여 초대했다.

나는 박사과정 공부를 시작하자마자 몇 가지 당혹스러운 사실과 마주했다. 플라톤을 포함하여 세기의 철학자들이 한결같이 어렵다고 고백한 학문의 영역이 이른바 ‘아름다움’을 규명하고 ‘예술’을 논하는 그 미학의 영역이었다. 칸트는 미(美)의 영역이 진리와 선악을 다루는 영역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유해야 질서가 잡힌다고 생각했고, 미학은 그렇게 감성과 인식의 영역으로서, 진리(眞)와 선(善)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있었다. 쉽게 말하면, 개혁주의 신학의 관점으로 미학을 논한다는 것은 신학과 철학을 넘나들며 죽을 만큼 고민해야 하는 영역이었다.

왜냐하면 각 개인이 갈망하는 아름다움의 종류는 다르고, 인식의 방법이 주관적이며, 예술의 모든 장르가 각각의 미학적 노선을 걸으며, 고대로부터 동시대까지 예술의 의미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독교예술학’이 지성의 학문으로 인정을 받기에는 일관성과 보편성이 부족하다는 평판과 한계에 수없이 부딪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영역이며,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재탈환해야 하는 잃어버린 영토를 대하는 그런 마음이었다. 공부를 마치고 귀국하면서 국내 유일한 개혁주의 문화신학자

신국원 교수님이 계신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의 일원이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예술학, 교양철학, 예배음악, 기독교예술사 등의 과목들을 강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일차적 소명은 예술이라는 학문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고유의 주권과 자유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다른 영역들과도 조화를 이루며 세상을 구성하는 특별한 영역임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것이다.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감성과 인식의 영역의 당위성을 논하는 것은 그 자체로 지성의 영역에서 쉬운 일은 아니다. 무엇보다 성경 해석학에 능한 학자가 되어야 하며, 논리학과 심리학의 전반적 지식도 갖추어야 함을 느낀다. 기독교 인식론과 영성 형성에 대한 안전한 신학적 소양을 갖추고 대중 문화와 각 예술 영역의 역사와 양상도 더 깊이 공부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는 길은, 다양한 학문의 이해와 함께 예술의 자리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위치한 올바른 양지에 올려놓는 일에 작은 보탬을 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

이를 통해 기독교 지성인들이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더 풍성하게 경험하고 인식하는 것을 돕고 싶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과 계시에서 수학적 계산이나 과학적 실험, 경영적 전략이나 교육 성격의 논리적 설명으로 하지 않으셨다. 그는 비유로 말씀하셨다. 실제에 있을 법한 허구의 스토리로 그 진실을 '경험케 하는' 방식이었다. 이것이 정확히 예술이 하는 일이다. 다양한 영역의 기독교 지성인들이 예술 영역과 조화로운 공존을 하며 그들의 신앙과 지성이 영성으로 더 따뜻해지는 기독교 문화를 꿈꾼다.

동시에 기독교 예술인들이 교회 건물의 벽을 넘어 인간을 더 사랑하는 따뜻한 예술을 흘려보내는 일에 동참하도록 함께 될 준비를 하고 있다. 최근에 '아트미션'과 '기독교 미술인 협회'라는 기독교 미술인 단체에 초청을 받았는데, 연구를 넘은 '기독교 세계관 운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경험했다. 그들이 차곡차곡 쌓은 작품활동과 기독교 미술에 관한 연구 자료들을 대하고는 가슴이 먹먹해졌고,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세상 문화를 아름답게 변혁할 수 있다는 소망으로 충만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예술은 다른 어떤 영역보다 본능적으로 '은 찬하보다 귀한 한 영혼'의 소중함을 이해한다. 아흔아홉 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간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은, 숫자와 계산이 중요한 고착된 신념과 사실을 기준으로 보면 비합리적일 수 있다. 그러나 생명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아는 자에게는 공감할 수 있는 선택이다. 아름다움의 참 본질을 이해하는 예술적 소양은 한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의 태도를 길러줄 것이라 믿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세상을 향해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리스도인의 모든 길을 아름답게 할 그런 학문을 꿈꾸며, Soli Deo Gloria!. **FAITH & LIFE**



글쓰기 서나영

현재 총신대학교 및 미국 미드웨스턴신학교 객원 교수, 미국 스펠전 칼리지 초빙교수이다. 미국 남침례신대학원(South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에서 기독교 예술학으로 박사학위(Ph.D)를 받았다. 현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소장학자로도 활동하고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과학교육을 향하여

김홍빈 (서울대 물리교육과 강사 및 부산대 유전체물성연구소 박사후 연구원)

몇 년 전, 절판되어 시중에서는 구하기 힘든 <종교개혁과 과학혁명>이라는 책을 구하기 위해 책을 낸 출판사에 직접 찾아간 적이 있다. “제목을 영 잘못 지었어요. ‘과학’이라는 단어도 따분하고, ‘종교’라는 단어도 따분한데 이 둘이 다 들어있으니 누가 좋아하겠어요?”라고 투덜거리며 창고로 내려가던 출판사 직원의 자조하는 탄식에 자못 놀랐다. 한편으로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 싶었다.

그날 이후 종종 그 직원의 탄식을 떠올리면서 정말 사람들에게 ‘과학’과 ‘종교’가 따분한 주제인지, 그렇다면 왜 그런지, 이와 관련해서 내가 할 일은 무엇인지 등을 고민하곤 했다. 여기서 ‘종교’란 물론 기독교 신앙을 말한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많은 사람이 ‘과학’ 하면 지레 겁을 먹고 부담스러워하지만, 어린이들을 보면 대체로 과학 과목을 좋아하고, 이것저것 만지면서 실험하는 것을 대부분 즐겨워한다. 그리고 사람들과 대화해보면 ‘종교 생활’은 싫어할지언정 ‘진리’, ‘영원히 변하지 않는 가치’와 같은 것에 아예 무관심한 사람도 드물다. 누구든 자신의 삶을 온전히 위탁할 수 있는 그 무엇을 갈망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딘가 잘못된 교육을 받아서 과학에 관한, 또 기독교 신앙에 관한 왜곡된 시각을 갖게 된 것은 아닐까? 나는 바른 시각을 가지고 있나? 과학을 공부하면서 지식은 상당히 쌓였지만, 과학과 신앙을 아우르는 큰 그림은 가지고 있지 않거나, 또는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

물론 필자는 기독교 신앙을 진심으로 고백하고 있고, 이것은 전적으로 은혜의 영역임을 시인한다. 문제는 내가 과학을 바르게 가르치고 있는가 하는 데 있다. 과학으로 해석된 세계만을 공적인 것으로, 교회 안에서 고백하는 세계는 사적인 것으로 분리시키고 또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을까? ‘분리되지 않은’(undivided) 과학교육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이런 고민 속에서 자연대학에서 연구하던 필자는 점점 교육 분야로 관심 영역을 이동해왔고, 지금은 사범대학에서 가르치며 연구하고 있다.

교육 현장에서 과학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

C. P. 스노우(Charles Percy Snow)는 “숫자 2는 위험하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필자가 보기에 교육 현장에서 과학을 바라보는 태도에는 크게 두 가지 관점이 있는 듯 보인다. 그중 하나는 과학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관점이다. 물론 과학은 대단하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을 극단으로 몰고 가면 과학이야말로 지식의 유일한 기준이고, 자연과학의 방법을 통해 규명되지 않는 것은 아예 믿을 수 없다는 식의 생각으로 과장될 수 있다. 이것을 우리는 ‘과학주의’(scientism)라고도 부르는데, 교육 현장에서는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든 과학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실상은 과학주의 사상을 심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와 반대로, 과학이 '아무 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관점도 있다. 이 생각에 따르면, 과학적 지식은 결코 진리가 아니며 단지 사회적 합의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내 신념과 맞지 않으면 무시해도 좋다. 이러한 생각이 교육 현장에서는 '학생 존중'이라는 건전한 생각과 손을 잡으며 뜻밖의 위험한 교육과정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예를 들어, 지식은 단지 학생의 머릿속에서 또는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이라든지, 학생마다 흥미를 느끼는 영역이 다양하기에 과학교육에서도 진리니 규범이니 하는 말들은 최대한 없애고 오로지 학생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해야 한다는 생각이 교육 전반에 큰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진리 추구'와 같은 이상은 요즘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구시대의 유물이라는 것이다.

물론 위의 두 관점 사이에는 다양한 관점이 있을 수 있다. 숫자 "2"가 위험하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두 극단을 고려함으로써, 그사이의 스펙트럼 속 나의 위치를 가늠해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기독교 신앙에 부합하는 과학교육의 회복

필자는 과학교육이 앞서 말한 두 가지 양극단 중 한 쪽으로 치우침을 우려하고 있다. 적어도 이러한 양극단의 관점은 과학 또는 인간을 최고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과학교육의 모습은 아닐 것이다.

자연과학에서 일정 부분은 지식의 사회적 구성을 인정하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학적 지식이라는 것이 공동체의 합의로 임의적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우리에게 펼쳐 보여 주시는 만큼 우리는 실재의 부분적인 모습을 포착할 수 있고 그것이 과학적 지식의 중요한 한 측면이라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진리 추구'라는 가치는 구닥다리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

같은 중요한 가치라고 본다.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적 지식은 여전히 잠정적이며 언제든지 새로운 관찰로 폐기되고 다른 이론이 그 자리를 대체할 수 있다. 이것은 과학도 결국 인간이 하는 활동이라는 점을 깨닫게 해준다. 즉, 우리는 과학교육을 통해 과학적 사실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틀릴 수 있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두루 깨닫게 되는데 이것은 과학교육에서 강조해야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가치가 아닐까 싶다.

기독교 신앙에 부합하는 과학교육은 과학도, 인간도, 자연도 아닌 하나님이 중심으로 드러나는 과학교육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과학의 대단한 측면과 인간의 한계를 균형 있게 조명해줄 필요가 있다. 과학교육에서 이러한 양면성이 고려될 때, 학생들은 '과학-인간-자연'을 통합적으로 바라보면서 궁극적으로는 이들 너머에 더 큰 실재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것이 필자가 생각하는 '좋은' 과학교육, '분리되지 않은' 과학교육의 모습이다. 이미 이와 비슷한 생각을 했던 선배 학자들로부터 배우면서 필자 역시 '작은 영역'(물리학)에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과학교육을 향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FAITH & LIFE

글쓴이 김홍빈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물리교육과에서 강사로, 부산대학교 유전체물성 연구소에서 박사후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다. 물리교육 연구를 통해 학생들에게 과학에 대한 올바른 이미지를 가르치고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도록 하는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 인천제일감리교회에서 중등동부 교사 및 속장으로 섬기고 있다. 현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정회원이다.

기독교와 대중문화, 그 사이의 길

유지윤 (아신대 교육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나는 왜 이 길에서 있나. 이걸 정말 나의 길인가.’
_god <길>

무엇이든 될 수 있어서 모든 것이 불안했던 나의 10대 시절. 그때 당시 친구들과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던 가수 그룹 god(groove over dose)의 노랫말은 나에게 큰 도전이자 위로가 되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로 그랬다.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 어렸을 적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 굳게 믿었지만, 어쩔 수 없이 밀려오는 불안함과 두려움은 때때로 나의 영혼을 잠식하곤 했다.

그럴 때마다 가수 god의 노래가 아닌 하나님(God)의 말씀을 읽었다면 지금쯤 나의 길이 달라졌을까? 정답은 알 수 없지만, 애석하게도(혹은 다행스럽게도) 나의 10대는 성경책 대신 온통 가요와 영화로 가득 차 있었다. 대중문화를 경계하는 기독교 담론을 접하지 못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내가 다니던 교회는 상대적으로 대중문화에 열린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 무엇

보다 영화를 좋아하시던 어머니를 통해 나는 나를 둘러싼 환경보다 더 넓고 다양한 세계를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다. 해외 한번 나가본 적 없었던 나에게 MTV가 보여준 오색찬란한 세상이란!

그렇게 대중문화를 섭렵하며 내가 깨달은 것은 영화나 드라마 같은 대중적인 콘텐츠만이 아니라 그것을 전달하는 미디어가 가진 ‘설득의 힘’이었다. 이런 미디어를 이용해 기독교적 메시지를 더 많은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기독교 대학에 진학하며 커뮤니케이션을 전공으로 선택한 배경에는 이렇게 진지하고 뜨거운 마음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것이 얼마나 순진하고 아둔한 생각인지 깨닫기 전까지는 말이다. 전공 수업을 통해 다양한 지식을 쌓으면서 나는 미디어가 단순히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수단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잇고 서로 소통하게 만드는 통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특히 디지털 미디어의 발달은 사람과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사이를 초연결하고 있으며, 전에는 상상

도 하지 못했던 새로운 방식의 소통과 관계를 만들어 내고 있다. 우리가 이미 코로나 시대를 거치며 직접 경험해본 것처럼 말이다.


또한 미디어를 매개로 생산되는 대중문화는 고정적이고 단일한 차원을 갖기보다는, 특정한 사회 내에서 정치 및 경제적 요소 등에 영향을 받으며 시대에 따라 그 모습을 달리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맥락에서 대중문화는 하나의 의미체계만이 아니라 서로 다른 생각과 가치관이 공존하고 있으며,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경합을 벌이는 지극히 '정치적' 장소이다. 일례로 같은 사건을 놓고 해석을 달리하는 언론이나, 기존의 가부장적 질서에 대항하는 메시지를 담은 영화나 가요를 오늘날 우리는 쉽게 떠올려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대중문화는 그동안 교회에서 자주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독교와 완전히 분리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한 관계 설정은 바람직하지도 않다. 대중문화 안에는 이웃에 대한 사랑과 희생, 용서와 같은 기독교적 메시지가 담겨있으며, 또 때로는 그와 반대되는 가치관이나 재현이 나타나기도 한다.

따라서 나는 학생들에게 대중문화를 단순히 유희나 소비의 대상이 아닌 '진지하게 들여다 볼 대상'으로 대할 것을 요청한다. 대중문화가 이토록 역동적인 장소라면 그것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거나 무턱대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스스로 읽어낼 수 있는 능력과 태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소위 문화연구 분야에서 이야기하는 '능동적 수용자'를 길러내는 것, 그것이 나의 일차적인 교육 목표이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나는 학생들에게 대중문화를 통해 교회를 향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진지하게 경청할 것'을 권면한다.

최근 들어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재현이 많아지고 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현실에서 사람들은 교회의 어떤 모습에 실망했기에 그와 같은 가상적 이미지에 크게 공감하는 것일까? 만약 이와 같은 측면에 귀 기울인다면, 우리는 교회를 향한 사람들의 기대와 소망을 읽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 밖에도 연구자로서 나는 교회에서 활용되는 미디어와 그것이 만들어내는 변화에 주목하고, 또 교회 안에서 통용되는 커뮤니케이션 실천은 어떠한지 면밀히 관찰한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익숙한 언어나 미디어, 말하거나 듣는 관습이 만들어내는 독특한 관계와 주체의 모습이 있기 때문이다. 나는 그러한 연구를 통해 사람과 사람, 사람과 교회, 교회와 세상 사이에 다리를 놓고 싶다. 이 글을 시작하면서 인용했던 god의 노래는 알 수 없는 길에서 방황하는 자신의 모습을 한탄하는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을 위해 "오늘도 걸어간다"라고 노래한다. 이 노래가 질풍노도의 시기를 지나 불혹에 접어든 나에게 여전히 큰 도전과 위로가 되는 이유이다. **FAITH & LIFE**



 글쓴이 유지윤

아신대학교 교육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조교수이다. 한동대학교, 연세대학교에서 수학했고, 미국 콜로라도 대학교에서 매스커뮤니케이션 전공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저서로는 <챗GPT 목사님 안녕하세요> (들림, 2023), <AI 시대의 교육목회와 미디어>(꿈미, 8월 출간예정)가 있으며, 역서로는 <스마트랜드 코리아>(한울아카데미, 2021)가 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 신앙, 삶, 학문

정문선 (성균관대 교육학과 강사)



나는 기독교 세계관을 학문으로 만나지 않았다. 학문의 길을 가던 도중,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교육철학 박사과정을 수료한 후 학문과 삶에 깊은 회의를 느꼈다. 교육철학은 한 마디로 ‘좋은 교육에 대한 탐구’이다. 뛰어난 학자들처럼, 좋은 교육에 대한 나만의 관점을 갖는 것이 학문의 길에 들어선 이유였다. 흔들리지 않는, 누가 물어도 답할 수 있는 그런 ‘진리’를 찾고 싶었다. 그런데 ‘좋은’이란 말의 의미는 시대마다 학자마다 매우 달랐고, 교육의 의미는 말할 것도 없었다. 어떤 학자의 장점은 다른 학자에게는 단점이었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였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변하지 않는 진리는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렇게 학문 영역에서 길을 잃었다.

비슷한 시기,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삶의 영역에서도 빛이 보이지 않았다. 그동안 배워왔던 공부는 좋은 아내 또 좋은 엄마가 되는 데 별로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았다. 아내로서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들고, 집을 청소하는 데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아이를 잘 돌보는 데 허스트의 지식의 형식이 무슨 상관인지? 그동안 배운

교육이 가정을 꾸리고 사는 데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 학교는 삶에서 10여 년이지만, 가정은 평생이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 시간이 가정과 상관 없었다면, “교육이란 무엇인가? 도대체 무엇을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삶으로부터 던져졌다. 나는 진리를 내 힘으로 찾고자 한 학문적 욕구와 좋은 인간이 되고 좋은 삶을 살고자 한 삶의 실천이 좌절된 끝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던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고, 내 안에는 일말의 선함도, 선을 행할 능력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만 구원받을 수 있으며,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믿어졌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갈 2:20)라는 말씀처럼, 전 존재가 새로운 가치로 변화되었고 세계를 보는 눈이 달라졌다.

앞으로의 비전과 꿈은 교육 분야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좋겠다는 것이다. 나에게 기독교 세계관 운동은 기도이자 신앙의 실천이다.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이지?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을까?”라

는 질문은 “그리스도인답게 학문한다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으로 이어졌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은 마치 잔잔한 호수에 돌멩이를 떨어뜨리면 물결이 동심원을 그리며 퍼져나가는 것과 같다. 나의 마음밭 가장 깊은 곳에 신앙이 자리 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훈련받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전 영역 중 ‘지금 여기에서’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부분에서 신앙을 실천하는 것으로, 사적 차원에서 공적 차원으로까지 번져나가는 삶이다.

현재 교육은 파괴적인 경쟁, 학교폭력, 높은 사교육비, 교권 추락 등 여러 가지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학생, 부모, 교사 어느 누구도 행복한 교육이라고 충족감을 느끼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대한 대안을 찾기 위해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얼마나 실제로 개선하고 있는가는 잘 모르겠다. 특히 범치국가에서 교육의 문제들을 각종 ‘법’으로 해결하려는 방식은 필수적이지만, 과연 그것이 교육적인가는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학교폭력을 엄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마치 사법체계처럼 접근하는 것은 일견 이해가 되지만, 그 과정에 부모의 참여나 대화가 원천적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은 문제를 ‘화해’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분쟁’으로만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

나는 대안 교육뿐만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수의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공교육’ 분야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면 하는 소망이 있다. 이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가능하게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 다만 지금 주시는 비전은 공교육에서 ‘종교’를 필수로 가르치면 좋겠다는 것이다. 이 땅에서의 세속적인 성공, 예를 들면 돈을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인기 있는 학교에 진학하는 것,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나 직업을 얻는 것에 혈안이 된 교육 현장에 눈을 들어 위, 즉 삶의

이상들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예루살렘과 아테네가 무슨 상관인가?”라는 도전은 오늘날에도 유효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학문을 하는데 가장 어려운 문제이다. 논문을 쓸 때마다, 신앙의 메시지를 낭만화시키지 않으면서, 동시에 학문의 엄격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너무 어렵다. “어떻게 하면 신앙의 언어를 계대화시키지 않으면서, 공적 영역에서도 통용되고 이해될 수 있도록 잘 풀어낼 수 있을까?”, “이 둘의 통합이 과연 가능하기는 한가?”라고 머리를 쥐어뜯는다.

이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 나는 오늘도 하나님께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기도로 간구하며, ‘두 권’의 책을 집어 든다. 세속 교육학자 존 화이트(John White)의 <잘 삶의 탐색>(교육과학사)과 기독교 학자 미로슬라브 볼프(Miroslav Volf)의 <인간의 변영>(IVP).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삶인가?”, “교육은 인간으로 하여금 어떤 삶을 지향하도록 해야 하며, 무엇을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가?” 세상 학문과 기독교 학문을 부지런히 읽고 공부한다. 나의 공부와 연구가 단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살리는 데 쓰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FAITH & LIFE



✍ 글쓴이 정문선

성균관대 사교육혁신연구소 선임연구원이다. 성균관대 일반대학원 교육학과에서 교육철학 전공으로 박사학위(Ph.D)를 받았다. 현재 성균관대, 춘천교대 등에 출강하고 있고, ‘교육목적론’, ‘좋은 삶(웰빙)’, ‘휴먼 플러리싱’(인간변영), ‘공교육에서의 종교교육’에 관심이 있으며, 셀 가족 및 학문 후속 세대와의 기독교 세계관 독서모임 섬김을 소명으로 생각한다.

창조주를 ‘보도록’ 이끄신 연구 : 프랑스어 읽기교육

홍승현 (서울대 불어교육과 강사)

나는 어릴 때부터 외국문화를 가까이하면서 외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고 싶은 마음, 그 외국어로 소통하면서 전문영역에 종사하는 멋진 여성이 되길 꿈꿨다. 그래서 학부에서 프랑스어문학을 전공했고 3학년 때 짧은 기간 파리 소르본대학에서 언어연수도 했지만, 그때까지는 노력과는 달리 프랑스어 구사 능력이 너무나도 초라했다. 그래서 나는 자신부터 프랑스어를 능숙하게 구사할 교육방안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자 프랑스로 유학을 떠났고, 그곳에서 다시 학부에서부터 박사과정까지 외국어 읽기 교육에 모든 청춘의 열정을 아낌없이 쏟아부었다.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열정의 시간을 한참 보낸 후 인생 중후반에 찾아오셨다.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에 눈에 보이지도 손에 잡혀지지도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 당신은 도대체 어떤 존재이세요?”, “나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소명은 도대체 무엇인가요?”를 진지하게 여쭙게 하셨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내 전공인 읽기연구 영역 안에서 새로운 연구 영역으로 초청하시고 이끄셨다. 즉 ‘안구운동 추적기’(eye-tracker)를 활용하여 프랑스어 읽기 교육을 인지심리학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연구였다. 이 연구는 독자가 글을 읽을 때 안구(시선)를 단어에 고정하여 정보를 처리하고 또한 안구를 다른 단어로 이동하여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면서 글의 의미를 구성한다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이 과

정에서 독자가 단어의 정보를 처리하는 시간과 다음 순서로 읽을 단어를 선택하는 것은 여러 언어적 변수에 따라 또한 각자의 읽기 능력에 따라 달라지기에, 연구는 그 원인에 따른 인지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었다.

나는 한국 대학생들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이들이 프랑스어 텍스트를 읽을 때 나타나는 특별한 인지 과정이 있는지를 밝혀내고자 했다. 그러나 연구를 해보니 이들의 읽기 양상은 상상 이상으로 복잡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지심리학은 내가 대학 다닐 때 관심을 가졌던 학문이기도 했기에 흥미로웠고, 이것을 하나님이나 나의 오래전 꿈을 기억하시고 주신 선물로 받아들이고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연구했다. 그 결과 나는 한국 대학생들의 프랑스어 읽기에 관한 읽기 양상을 다수 발견할 수 있었고 흥미로운 인지 과정을 증명할 수 있었다. 그중, 독자가 모국어로 읽든 외국어로 읽든 언어와 상관없이, 글의 정보를 놀라울 정도의 빠른 속도로 처리할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정보를 의미가 구성될 수 있는 단위인 구, 절, 문장 단위로 통합하여 처리한다는 것, 그리고 읽고 있는 단어의 정보에 앞서 읽은 단어의 정보를 재통합할 경우, 의미 차원에서 연결되는 단어들 사이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다. 이것은 독자가 읽고 있는 담화의 일관성을 구축하기 위해, 끊임없이 의미 단위로 내용을 구성하는

인지 과정을 보여준다. 나는 인간의 '정밀한' 인지처리 능력이 경이로워서 그저 감탄만 할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은 내가 연구로 얻은 학술적 성과에만 만족하도록 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뜻은 늘 더 높은 곳에 있다는 듯이 그리스도인 소장학과 모임으로 인도하셨고, 신실한 그리스도인 학자들과의 교제를 허락하셨다. 우리는 신앙과 학문을 통합하고자 노력하며 각자의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 진리를 증언하고자 했다. 하나님은 이 방향에서 내가 한국 대학생들이 읽기 과정에서 사용한 고도의 정보처리 능력을 통해서, 인간은 세상에 우연히 탄생한 것이 아니라, 창조주의 정교한 손길에서 태어난 걸작품인 것을 볼 수 있도록 하셨다. 특별히, 독자가 읽는 언어와 상관없이 또한 구사 능력과도 상관없이, 정보처리가 의미 파악을 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통해서, 인간은 누군가와 의사소통하도록 설계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게 하셨다. 이로써, 나는 인간과 소통하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더 알게 되었고,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아는데 이르렀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의사소통을 잘 할까?”라는 물음 앞에, 만약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나는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읽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삶의 영역이기에 성경을 잘 읽을 수 있는 능력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성경은 다른 책과는 달리 장르, 그 목적과 내용, 구성이 매우 독특하다. 66권으로 구성된 성경은 여러 시대 및 장소에서 일어난 일들을 말하지만 모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연결되고 귀결된다. 그 내용은 우리가 정확히 그릴 수 없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의 나라에 대한 것이고, 그 목적은 이성으로 이해될 수 없는 부활의 예수님을 그리

스도로 시인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성경은 독자가 자의적으로 해석해도 좋을 수 있는 책이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믿음이 전제적으로 요구되는 책이다. 이러한 성경을 읽는데 독자에게 특별히 구별되는 읽기 능력이 있다면 무엇일까요를 늘 생각한다. 앞으로 나의 연구 계획은 성경을 텍스트 차원에서 연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는 양상을 관찰하고 연구하여, 이들에게 성경을 잘 읽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읽기 방법을 마련하는 데 있다. 아마도 이것은 내가 주안에서 외국어 읽기 교육이라는 학문으로 시작한 연구의 궁극적 목표가 될 것이다.

끝으로 나는 학문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을 발견하고 깨닫고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신앙과 학문을 통합하는 그리스도인 학자의 사명은 각자의 학문을 통하여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인간을 통해 일하시하고자 하는 그분의 뜻을 알아가도록 하여 우리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 그래서 마침내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놓이게 하는 것에 있다고 본다. 나에게 이러한 연구자의 자리로 초청하시고 여러 동역자들과의 귀한 교제를 통해 창조주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FAITH & LIFE**



글쓴이 홍승현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불어교육과와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강사이다. 상명대학교 학부에서 프랑스어문학을 전공했고, 프랑스 Franche-Comté대학교에서 외국어로서의 프랑스어 교수법을 전공해 박사학위(Ph.D)를 받았다. 주요 연구 분야는 프랑스어 읽기 교육이다. 인생 중후반에 하나님을 만나, 현재 성남에 소재한 선한목자교회(기감)를 섬기고 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는 삶'을 꿈꾼다.

성경적 ‘진리’를 향한 열정은 그 소유를 반드시 담보하는가?

홍성욱 (한국천문연구원 선임연구원)

몇 주 전에 한 부흥 집회에 참석했는데, 다양한 저술 및 강연 활동으로 섬기시는 30대 젊은 강사님이 모어랜드(James Porter Moreland)의 <과학, 과학주의, 그리고 기독교>라는 책을 해설하는 강연을 해주셨다. 그분은 거기서 오늘날 교회에 출석하는 젊은 세대는 예전 세대처럼 일상생활에서 신앙의 능력을 발휘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고 지적하셨다. 그 이유는 젊은 세대가 천지 창조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실제 역사적 사실로 여기지 않고, 단지 신화나 교훈을 주기 위한 이야기로 여기기 때문이라고 꼬집어 말씀하셨다. “정말 그렇지”라고 필자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그 후 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필자의 마음에 한 가지 불편함이 자라났다. “여러분은 정말 창세기 1장 1절을 있는 그대로 사실로 믿습니까? 저는 이 세계가 6일 만에 창조되었다는 젊은 지구 창조론을 믿습니다.” 필자는 천문학자이고, 천문학 안의 다양한 세부 학문 중에서도 ‘우주론’(cosmology)이라고 하는 학문을 주로 연구한다. 우주론이란 이 우주가 어떻게 태어나서 시간에 따라 그 크기와 전체적인 구조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하늘에 있는 별과 은하와 같은 천체를 바라보며 연구하는 학문이다. 오늘날 많은 과학자가 정설로 받아들이는 표준 우주론 및 천문학에 따르면 우리 우주는 빅뱅에서 시작한 후 약 137억 년 정도 흘렀고, 지구를 포함한 태양계는 지금으로부터 약 50억 년 전쯤에 만들어졌다고 한다. 물론 많은 이들이 지적하듯

이 현대 과학은 완전무결하지 않고, 과학이 으레 그래왔듯 지금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과학 지식도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바뀌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137억 년이라고 하는 우주의 나이가 순식간에 6천 년으로 바뀔 정도로 우주론이 기반부터 완전히 흔들리는 일이 쉽게 일어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필자 역시 과학자로서, 앞서 소개한 우주론과 천문학의 정설을 잠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다시 부흥 집회로 돌아가서, 필자의 마음이 불편해진 까닭은, 아마도 강사님의 말씀이 필자에게 이런 대화로 느껴졌기 때문일 것이다.

“형제님은 성경을 믿으십니까?” “네.”

“형제님은 창세기를 믿으십니까?” “네.”

“형제님은 온 우주와 지구, 모든 생물이 약 6천 년 전에 창조되었으며, 대략 144시간 동안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

“그렇다면 형제님은 창세기를, 성경을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형제님의 믿음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물론 강사님이 필자를 대면해서 만난다고 해서, 필자를 이렇게 정죄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필자는 최근까지도 이런 종류의 대화를 많이 접했고, 그때마다

필자에게는 당혹감과 죄책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필자라고 왜 모든 것을 선명하고 단순하게 믿고 싶지 않겠는가. 하나님 앞에서 과학자의 꿈을 진지하게 재검토했던 시기를 보내고 얼마 뒤, 필자는 일본에서 번역된 짧은 지구 창조론에 관한 책을 읽었다. 그 책에는 별과 같은 천체가 얼마나 순식간에 창조될 수 있는지 자세한 설명이 적혀 있었다. 그 책을 집중해 읽는 동안,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설명되는 것 같아, 솔직히 너무 신났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책의 설명이 과학적인 정설과는 너무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필자에게는 배신감이 몰려 왔다. 과연 하나님을 믿는데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이런 거짓말을 해도 되는 걸까. 만약 하나님을 믿는 내 믿음이 저 책에 나온 주장에 근거하고 있었다면, 그 주장이 틀렸다는 것이 밝혀지는 순간 나는 하나님을 더 이상 믿으면 안 되는 것일까.


필자 주변에도 성경이 과학과 모순된다는 이유로, 혹은 성경과 과학을 조화시키기 위해 만들어져 왔던 주장이 틀렸다는 이유로, 신앙을 잃거나 신앙에 큰 타격을 받았다고 고백한 사람이 여럿 있다. 필자는 필자의 우주론 연구가 궁극적으로는 신앙과 자연과학이 서로 화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지는 데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하지만 연구를 계속할수록, 필자가 과학자로서 정직하게 말할 수 있는 내용이 대부분의 교회 공동체에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다가올지 확신이 잘 서지 않는다. 교회 강단에서는 말씀을 선명하게 믿고 순종하라고 가르치는데, 필자의 이야기가 오히려 그 말씀(또는 그 말씀에 대한 그 사람의 생각)의 선명성을 흐릿하게 하는 것은 아닐까.

문득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생각해 본다. 오늘날, 일부 비지성주의자를 제외하고는 기독교 공동체의 어느 누구도 지구가 태양 주위를 움직인다는 것을 부정하

지 않는다. 또한, 지구가 온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이 누군가의 신앙을 약하게 하지 않는다. 하지만, 지동설이 처음 나타났을 때의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루터를 포함한 신앙의 대선배들은 지동설이 여호수아 10장과 같은 성경 말씀과 전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게다가 브루노(Giordano Bruno)와 같은 사람은 지동설의 아이디어를 너무 심하게 확장해서, 수많은 세상에 수많은 외계 생명이 살 것이라는 극단적인 생각도 할 정도였다. 즉 지동설은 그 당시에는 교회에 실질적으로 위협이 될만 했던 위험한 이론이었고, 이것이 교회에서 아무 문제 없이 받아들여지기까지 수많은 세월이 필요했다.

필자 역시 필자가 잠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표준 우주론과 천문학이 우리 신앙에 아무 문제 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그렇다고 해서,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창조 기사를 포기할 필요도 없을 것이라 믿는다. 하지만 솔직히, 이 두 개를 어떻게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 아직 필자는 잘 모른다. 비겁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필자는 천국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었을 때, 그때야 비로소 그분께서 이것이 어떻게 말이 되는지 보여주시리라 믿는다. 그때까지는, 비록 마음속 어딘가에 미혹이 있을지언정, 이 두 가지가 언젠가는 조화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고자 한다. FAITH & LIFE



 글쓴이 홍성욱

한국천문연구원 이론천문센터 선임연구원이다. 카이스트 물리학과에서 학부와 석사과정을 졸업했고, 우주론 전공으로 박사학위(Ph.D)를 받았다. 서울시립대학교 연구교수(2018~2020), 고등과학원 QUC 연구원(2013~2016), 충남대학교 박사후연구원(2011~2013)을 지냈다. 현재 대덕한빛교회 안수집사이며, 카이스트 기독교세계관동아리 RACS 간사로도 섬기고 있다.

선지자적 비관주의: 소멸의 시대, 한 줌의 희망을 찾아

김반석 (도쿄대학 인문사회계연구과 박사과정)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인터넷 뉴스 댓글에서 많이 보이는 문장이다. 저출산과 고령화,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의 소식들, 사회 곳곳에서 제기되는 이상징후들 앞에서, 이제 우리는 망할 일만 남았다는 체념의 말처럼 들리는 것이 영 쓸쓸함을 자아낸다.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일리가 있는 반응이기는 하다. 지금은 종교가 아닌 과학이 종말론을 이야기하는 시대이니 말이다. 자연과학자들은 기후위기가 가져올 재앙에 대해 지속적으로 경고해 왔으며, 이제는 곳곳에서 기상이변과 자연재해로 그러한 위기론이 현실이 되고 있다. 인구학자들은 우리나라의 저출산과 고령화, ‘수도권-지방’의 인구 격차가 사회의 전 영역에 걸쳐 다양한 문제와 갈등을 일으킬 것을 경고하고 있다. AI 기술의 발달이 우리 사회에 어떠한 혼란을 가져올지는 아직 가늠조차 할 수 없는 상태이다.
이렇듯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 걸쳐, 다양한 학문 분야로부터 종말론적 경고가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접고 냉

소하고 체념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반응인 것처럼 보인다. 그럼에도 여전히 마음 한편에 남아 있는 씩씩함을 지워낼 수가 없다. 아무리 사회의 여러 가지 지표가 불가역적인 파국을 예견하는 시대라고 해도, 그러한 상황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며 냉소로 일관하는 태도는, 현실을 덮어놓고 허황된 낙관론을 펼치는 것만큼이나 무책임한 태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소멸과 파국의 시대에 학자의 역할은 무엇일까에 대해 고민하던 중, 사회과학도의 길을 처음으로 택했을 때 붙잡았던, 하지만 한동안 잊고 있었던 지식 인상을 다시 한번 꺼내 보았다. 바로 손봉호 교수님께서 이야기하신 ‘선지자적 비관주의’이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이었지만, 동시에 당대 사회에 있어서는 비판적 지식인의 역할을 맡고 있었다. 선지자들이 외친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는 비단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저지른 종교적인 죄악에 대한 규탄일 뿐 아니라, 불의한 방식으로 부를 축적하고, 공의를 굽게 하며, 약자들

을 착취하던 당대의 정치권력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 기도 했다. 모두가 평안하다고 생각하던 시대에 감추어져 있던 불편한 진실을 폭로하고,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 선지자들의 중요한 임무였다.

이러한 선지자들의 모습을 보며, 어쩌면 우리 시대의 지식인들, 특히 사회과학자들의 역할이 구약의 선지자들의 역할과 맞닿아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사회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사회 조사를 실시하고, 이로부터 얻어진 데이터를 이론적으로 해석하여, 이를 통해 시대의 숨겨진 모순을 폭로하고 비판하는 것이 사회과학자의 본령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나만의 문제의식과 방법론을 갖고 닦아, 시대상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목소리를 내는 지식인이 되고 싶다는 생각으로 사회과학도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다.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비판적 목소리를 내며,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고민하는, '선지자적 비판주의'의 자세를 가진 연구자가 되고 싶었다.

하지만 연구자의 길에 들어설 때 가졌던 이러한 희망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희미해져 갔다. 날이 갈수록 심해져 가는 한국사회의 혼란상을 보며, 내가 지금 하는 작은 연구가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는 회의감이 커져 갔다. 지방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과 삶의 모습을 연구하는 나의 작업이, 이미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지방소멸의 경향에 비추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회의 섞인 반응도 접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어차피 세상은 돌이킬 수 없으니, 그저 학위나 따서 먹고 살 길부터 찾자는 생각에 스스로 무기력하게 지내던 날들도 있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러한 무기력함은 구약의 선지자들 역시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던 감정이기도 했다. 패역한 당대 사회는 나아질 기미가 없고, 이미 하나님의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 내려진 상황에서, 자신들의

자그마한 외침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는 무기력함을 선지자들 역시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선지자들은 포기하지 않고 시대를 정직하게 직면하며, 비판적 지식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나갔다. 그리고 임박한 심판 가운데 숨겨져 있는, 만물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진심을 꿰뚫어 보고, 환난 끝에 다시 도래할 희망을 노래했다. 이것이 '선지자적 비판주의'의 핵심이다.

많은 사람이 파국과 소멸을 이야기하는 시대이다. 더 이상 더 나은 미래를 기억할 수 없으니, 오늘날 일단 버티고 보자는 무기력함이 팽배해 있는 시대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일수록 더욱 '선지자적 비판주의'의 자세를 가진 지식인들의 자세가 요청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파국을 향해 치달는 현실을 정직하게 직면하면서도 그 안에서 자그마한 희망의 조각을 발견하는 것이, 디스토피아의 시대에 지식인들의 역할이 아닐까?

언젠가 다시 오셔서 만물을 회복시키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포기하지 않고 연구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다짐해 본다. **FAITH & LIFE**



 글쓴이 김반석

도쿄대학교 대학원 인문사회계 연구과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 석사과정에서는 한국 청년들의 지방 이주 현상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현재는 지방 도시에서 살아가는 청년들의 삶과 활동이 어떻게 앞으로의 지역사회를 변화시켜 나갈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 높은뜻 오차노미즈교회에서 유치부와 통역부를 섬기고 있다. 2022년부터 <신앙과 삶>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소장 학자 : 나의 신앙, 나의 학문

기독교 세계관 운동은 신앙과 삶의 이원화 극복을 핵심 가치로 삼으려는 노력과 맞닿아 있다. 삶에서 신앙과 학문 연구를 병행하며 이를 조화시키려 애쓰는 그리스도인 학자들의 고군분투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이런 노력과 분투는 특별히 한국교회 기독교 세계관 운동의 원로 손봉호 선생님과 그리스도인 소장 학자들의 진솔한 대화를 통해서도 선명해지리라 기대한다. 영성과 지성, 신앙과 학문의 이원화 극복을 위하여 이렇게 원로와 여러 소장 학자가 한자리에서 소통한 이야기는 묵묵히 자기 소명을 감당하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값진 선물이 될 것이다



일시 2023년 7월 20일(목) 저녁 8시
장소 Zoom 회의실
정리 & 이미지 석종준 (서울대 캠퍼스 선교사)

대담자 손봉호 박사 (서울대 명예교수,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명예 이사장)
참가자 김셋별 박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 교육심리학)
박정우 박사(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지질학)
윤현준 박사(송실대 기계공학부 교수, 응용역학/AI기반설계)
조지혜 박사 (서울대 교육연구소 객원연구원, 교육학)

손봉호 박사님들 안녕하세요. 현재 자신의 소속과 연구 분야를 간단히 소개해 주세요.

김셋별 저는 한국교육개발원 디지털 교육 연구실에 있습니다. 요즘 청소년이 학습할 때 온라인 콘텐츠를 많이 활용하는데요, 그 콘텐츠 개발 전담으로 최근 입사하였고, 연구 주제는 청소년의 인성 교육과 사회 기여 의식, 봉사활동 같은, 다소 도덕 교육에 가까운 내용입니다.

박정우 저는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에서 화성 암석학과 해양 지질학을 연구합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지구

내부에서 마그마가 발생하고 지표면에서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과정들이 어떻게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유용한 여러 광물 자원을 만드는지 연구합니다.

윤현준 저는 2020년 9월부터 송실대 기계공학부에 임용됐고요. 세부 전공은 응용역학이며, 박사 논문은 버려지는 진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으로 여러 스마트 구조들을 설계하는 연구를 합니다.

조지혜 저는 서울대 교육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요. 현재 서울대 교육연구소 객원연구원으로 있습니다. 2001학번으로 서울대 교육학과에 입학하여 석사과정에서는 교육 인류학을 전공했고 박사과정에서는 교육 사회학을 전공했는데, 주로 교육과 문화와 사회의 관계를 질적 방법론으로 연구합니다.

손봉호 모두 중요하고 흥미로운 분야를 전공하시는데요. 기대를 하겠습니까. 먼저 기독교 세계관 운동의 철학적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서양 사람들은 과거에 인간은 이성이 있기에 모두 세계를 같은 관점으로 본다고 전제했습니다. 그런데 19세기 들어서 “ 과연 이성이 그렇게 대단한 것이냐?”라는 의문과 회의가 생겼어요. 20세기 초, 문화인류학에서는 그 회의가 더 확산이 되어서 다원주의, 상대주의 같은 것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 기독교는 이성 중심의 서양 사상으로부터 큰 도전을 받았어요. 이성은 계시를 인정할 수 없으니까요. 주류 철학에게는 미신과 비슷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성에 대한 회의와 상대주의가 생기니까 “우리가 다 세상을 다르게 보지 않느냐?” 이 배경에는 종교와 문화의 다원성이 작용한다.”면서 ‘세계관’ 문제가 중요하게 됐습니다. 특히 네덜란드의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는 “기독교 세계관이 여러 세계관 중 가장 올바르다”라고 본 것이지요. 모든 피조물과 문화, 사상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고 했습니다. 다른 세계관은 “세계를 이렇게 본다.”라는 식으로 ‘기술적’(descriptive)이라면, 기독교 세계관은 “성경으로 세상을 이렇게 봐야 한다.”라는 식으로 ‘규범적’(prescriptive)이지요. 19세기까지는 “신앙은 신앙, 학문은 학문이다”라고 했지만, 이제는 “신앙과 학문”도 통합적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원주의를 극복하려는 것이 기독교 세계관 운동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학문하면서 이 문제를 한번 고민해 보셨는지,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하면서 어느 정도 고민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김셋별 저는 석사과정 때 처음 이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어,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학술대회도 참여하며 고민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어떤 명확한 답을 찾은 것 같진 않습니다. 교육학은 인본주의적이고 진보적인 성격이 있어서, 어떤 점에선 통상적 기독교와는 다른 입장을 취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직 해답을 찾지는 못했지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연구는 인성교육이나 시민교육 측면에서 기독교적 가치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주제들, 이를테면 봉사활동이나 친사회적 행동의 유익성을 검증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제 가치관과 합일되는 이야기들을 더 잘 할 수 있게 노력하려고 합니다.

박성우 전공에서 저의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드셨고 모든 피조물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구에는 인간이 아직 알지 못하는 비밀이 많을 텐데 그것은 하나님의 품성과 모습을 갖고 있을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찾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구와 우주를 보면 굉장히 복잡하고 광대한 시스템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을 창조하시고 한 치 오차 없이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함과 대비되는 인간의 유약함과 한계를 드러내는 것도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윤현준 제 학문영역에서 신앙 정체성은 사실 진로 고민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학부 3학년 때 우연히 ‘적정 기술’(appropriate technology)을 접하고 공학을 통해 소외된 이웃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배워서 남 주자”를 인생 비전으로 품고 “대학원에 가자!”라고 결심했고, 연구하면서 기계공학이라는 학문 자체의 심오한 매력에 자연스럽게 빠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전공을 등산에 비유하는데요. 우리가 산에 오를 때 경관 자체를 감상하지 매번 신학적 해석을 하지는 않지요. 마찬가지로 저는 연구할 때 창조 세계에 내재된 물리 법칙을 깨닫고 감탄을 금치 못



왼쪽 위에서 부터 시계방향으로
손봉호 김셋별 박정우 조지혜 윤현준



할 때가 있거든요. 기계공학 그 자체를 그냥 감상하는 거죠. 이것이 저의 그리스도인 학자로서의 정체성이 지 않나 싶습니다.

조지혜 저도 계속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석사과정 때는 질적 연구와 현대 철학을 공부했는데, 그때는 철학과 신앙을 조화시키는 일이 버거워서 정신적 고통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결혼 후 육아를 하면서 7년 정도 공부에서 떠나 있는 동안, 교회를 섬기며 만난 집사님들과 신앙 안에서 나눈 대화와 치유의 체험이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분들과의 만남을 논문으로 쓸 마음을 주셔서 연구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논문을 위해 현상학을 공부했는데,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체험한 치유적 대화를 잘 설명해 주는 좋은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하나님 이야기가 담긴 논문이 현대 철학과 만나서 석사 논문으로 완성되어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에 힘입어서 할 때 이전에는 내가 감당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당시 손봉호 교수님의 <고통받는 인간>, 강영안 교수님의 <타인의 얼굴-레

비나스의 철학>이라는 책이 논문을 완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손봉호 정체성이 반드시 정해져 있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삶은 계속 발전하는 것이기에 더 연구하고 경험하면서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게 되고 또 얼마든지 사회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신앙과 학문’ 사이의 긴장 또는 갈등 경험은 없었는지 나누어 보겠습니다.

박정우 제가 그리스도인 지질학자로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지구 나이는 과연 몇 년인가요?”입니다. 성경에 근거하면 약 6천 년인데 학계에서 얘기하는 45억 년과 상충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죠. 저는 먼저 6천 년이 맞는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학자마다 성경 원문이 무엇이나,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을 알았고요. 해석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다는 것도 발견했습니다. 자연과학의 언어로 몇 년이라고 묻는다면 저는 45억 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45억 년이라고 써놓지 않으셨던 이유에 대해서는 저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걸로 보기



에 서로 상충하는 것 같은 과학 언어와 성경 언어의 차이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인간이 만들어 낸 과학의 유한성을 생각해 보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인간과 다른 차원에 계시고 자연의 법칙을 충분히 거스르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성경과 과학에서의 지구 나이의 차이가 공존하게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고요. 둘째는 인간이 만들어 낸 과학의 유한성을 지적합니다. 과학은 자연계의 보편적 진리나 법칙을 설명하기 위한 지식의 체계로써 인간의 지식이 발전함에 따라서 언제든지 패러다임(paradigm)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과학의 유한함에 동의한다면 과학과 신앙은 절대 배치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손봉호 좋은 지적입니다. 박 교수는 현대 과학 철학을 상당히 올바르게 이해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과학 철학에서는 일부 과학자들하고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과학은 역사적으로 계속 바뀌었지 않습니까? 지적하신 것처럼 성경

이 과학적인 책은 아니거든요. 그 시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계시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과학 용어로 성경을 쓰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과학과 신앙의 갈등을 이야기할 때, “정말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했느냐?” 그리고 “과학을 바로 이해했느냐?”라고 물은 다음에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윤현준 저는 공학을 어떻게 가르칠까에 대해 생각해 봤었는데요.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맘몬주의(mammonism)에서 벗어날 것을 권면하곤 하거든요. 자본주의 세상에서 공학의 가치는 결국 최소 비용으로 최대 이익을 내는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 생산 단가를 낮추려고 저렴한 부품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 그게 결국 어떤 사고로 이어지기도 하는 거잖아요. 기계공학을 전공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제품을 만들 때 조금 더 정직하게 설계하고 제작해야 하지 않을까, 그러한 공학 윤리적 가치들을 학생들과 나누곤 하거든요. 단순히 취업하기 위해 좋은 학점을 받으려는 공부 아니라, 맹목적인 ‘인간 강화’(human enhancement) 기술이 아니라, 공학을 통해 이웃을 섬긴다는 사명감을 가지도록 강의해요.

손봉호 저는 맘몬주의와 더불어 환경오염 문제도 좀 더 심각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것, 강의에서도 그게 더 강조되면 좋겠습니다. 또 교육계 계신 두 분도 말씀해주세요

김셋별 저는 미국에서 연구할 때,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시민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증명하는 연구프로젝트의 팀리더로 일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데이터 수집의 일환으로 사용한 보조 문항 중, “너의 성별이 무엇이니?”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팀 내에서도 이 문항에 대해 몇 개의 옵션을 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통상적인 기독교 입장에서는 ‘남자’와 ‘여자’ 옵션이면 충분하다고 보겠지만, 요즘에 교육학에서는 성별을 표현할 때

도 'sex'(생물학적 성별)가 아닌, 'gender'(사회적 성별)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할 정도로, 성에 대해 굉장히 유연한 시각으로 봅니다. 제가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고 성별 문항을 '남', '여'로만 구분해서 제시하는 게 학생들에게 소외감과 배제감을 심각하게 느끼게 한다면, "그 연구가 과연 교육적인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전제를 가지고, 어떤 방향성을 향해 교육을 공부해야 할지 더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그런 생각들을 이어가는 중인 것 같습니다.

손봉호 동감합니다. 역시 인문사회 쪽은 계속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100% 정확한 해답을 제시하기보다, 기도하면서 가장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수밖에 없죠. 다만 원칙이나 진리,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제대로 쓰는 정도만 지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좀 나타내는 게 아닌가 합니다.

조지혜 저는 박사 논문으로 진보 진영의 청소년 인권 활동가들을 연구했습니다. 보수 기독교 진영과는 상당히 반대되는 운동을 하는 분들이었는데, 저는 이분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 교육에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연구하고 싶었거든요. 이 연구를 통해 우리 교육에 던져주는 의미나 시사점들을 찾고 싶은 저의 마음을 이해하시는 그리스도인 교수님도 절반 정도 만났고, 또 어떤 교수님들은 저의 연구를 어떤 정치적 프레임 안에서 불온한 것으로 보셨던 것 같아요. 이러한 경험을 하면서 "우리가 나와 다른 지향을 가진 이야기들을 무조건 배척하는 것이 맞는가?", "그 가운데서 의미 있는 메시지를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계속했던 것 같아요.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라는 정치철학자는 개인의 고유한 '탄생성'(natality)을 상당히 강조하는데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고유하게 지어졌고 그것을 실현하는 것이 우리 존재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 개념을 갖고 현장

을 보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대학 입시에 노예가 되고 자기의 꿈과 '탄생성'을 잃어버린 상태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의 인권을 다시 찾아주고 그들의 고유함을 찾아주는 그런 교육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 세상에 있는 분들과 소통하는 데는 오히려 어려움이 없는데, 기독교 안에서는 저의 연구를 바라보시는 양극단의 시선을 체험하면서 정치적인 프레임으로 보기 전에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고유한 가치나 의미를 찾아내는 학문적 논의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봉호 빨리 결론 내리지 마시고 계속 고민을 좀 하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정말 신실한 신앙적 입장에서 교육학을 연구하거나 또는 교육해보겠다는 분들을 만나서 열린 마음으로 토론을 많이 하는 게 좋아요. 로잔 언약(Lausanne Covenant)이라는 것이 있는데, 스위스 로잔에서 약 40년 전에 존 스토틀 목사님 중심으로 수천 명의 전 세계 복음주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그동안에 복음 전도와 사회 참여가 나누어져 있었지만 이 두 측면이 다 중요하다 하는 것을 결의했고, 이 결의는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공공신학 혹은 공공신앙이라는 것도 나왔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그리스도인에게만 해당하는 신학이나 신앙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사회 전체를 어떻게 보고, 성경이 그것을 어떻게 가르치는가를 연구하는 것이겠죠. 따라서 여러분이 현재 연구하는 분야가 사회에 어떤 공헌을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윤현준 요즘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등 여러 가지 기술적 이슈들이 대두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세상이 공학을 통해서 때로는 불로장생을, 때로는 기술의 바벨탑을 쌓으려고 시도하고 있는 거죠. 최첨단 기술 개발도 좋지만, 적정 기술을 통해 우리 주변의 소외계층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을 해결해 줄 수 있다

고 생각해요. 이런 점에서 공학은 우리 사회의 진정한 축복의 통로라고 생각합니다. 복음 전도가 의도된 선행이 아니라,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저 소외된 이웃들에게 개발한 기술을 나누고 친구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 공학자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손봉호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손녀가 대학생인데, 적정 기술 클럽의 구성원이 됐다고 해서 칭찬을 했습니다. 저도 적정 기술에 관심이 많고 아프리카에 여러 번 갔다 왔거든요. 특별히 말라위에 가보니까 부인들이 물을 길으러 수 길로 미터나 가야해요. 그래서 거의 모든 여인이 다 목에 병이 생겨났어요. 이게 너무 안타까워서 잘 아는 어느 선교사가 한국의 물지게를 도입해서 남자가 물을 지게 하는 훈련하고 있어요. 간단한 기술들이 가난한 나라에는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저는 사실 교육 선교회 이사장으로도 있습니다. 선교는 이제는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고, 학교를 세워주고 교육 수준을 높여가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김셋별 손 교수님께서 그 얘기를 해 주시니까 드는 생각인데요. 예전에 웨슬리 선교사님과 여러 교육학자가 독서 모임을 2년간 했었습니다. 그때, 토의로 나왔던 내용 중 하나가 학교의 공식 석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교사라고 그 지위를 이용해서 전도를 시도하는 것이 맞는지, 적합한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었죠. 이제 학생 개개인의 인권이라든지, 학생이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여지는 시대를 살다 보니, 복음을 전한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도 이전과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들을 했었는데요. 그때 웨슬리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교육자라면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

을 정말 잘하는 것이 가장 복음적인 것이다.” 그 대화 이후에, “내가 그리스도인 교육자로서 교육을 잘한다는 걸 뭘까?”라는 부분에 대해 고민해왔는데,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잘 접목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잠정적으로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내가 교육하는 학생이 이후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보다 더 훌륭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게끔 좋은 마음과 생각, 인성의 '토양'을 쌓게 하는 것이 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을 하더라도 개인이 갖고 있던 특성과 기질이 단번에 바뀌진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신앙이 생겼을 때 더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게 그 사람의 인성적, 지적, 정신적 토대를 잘 가꾸어줌으로써 복음의 역할이 제가 교육자와 교육학자로서 할 소명이라는 생각입니다.

손봉호 동의합니다. 교육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전도하는 것은 정직하지 못합니다. 솔직하게 교육자는 교육을 열심히 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 학생이 감화를 받아 “저 선생님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저렇게 열심히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잘 가르치시는구나”라고 생각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 전할 때는 분명하게 “나는 지금부터 전도한다.”라고 말하면서 전도하면 괜찮아요. 그러나 교육한다고 해놓고 전도하는 것은 정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기술을 가르친다면 사랑으로 열심히 잘 가르치면 전도가 되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이 투명하고 솔직해야죠. 이제 우리 박사님들 각자 전공 분야에서 “나는 적어도 이런 비전을 갖고 연구를 하겠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다.”라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조지혜 최근에 교육연구소에서 교수님들과 함께 ‘사회 정의와 공존의 교육’이라는 주제로 중장기 프로젝트를 세워보았는데요. 유네스코가 제안한 사회 구성원 모두가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공동재(common goods)’ 교육을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지에 관

한 큰 그림을 그려보았습니다. 이 작업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사회 정의와 공존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교육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각자 속해 있는 학문 영역에서 이런 큰 청사진을 함께 그려보고 연구로 실현될 수 있으면 좋겠고, 우리의 연구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 세상에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좋은 통로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계속 캠퍼스에 남아 있으면서 드는 생각은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속에서 연구하는 대학원생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것,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소장학자 분들처럼 공부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연구하는 분들이 많이 일어나면 좋겠다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손봉호 네, 아주 멋진 이상입니다. 공정성, 정의 이진 우리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성경에 ‘의(義)라는 말은 사실 헬라어로 ‘디카이오스’(δικαιος)인데 ‘정의(正義)하고 같은 단어예요. 구약 성경에는 정의가 굉장히 강조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우리 기독교 사랑은 정의를 포함하고 있고, 이 정의가 결여된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성경은 막연하게 그저 평등하고 정의롭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정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성경의 가르침은 결국 약자를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다른 것은 좀 부족해도 정의로운 사회인이 된다면 그것은 대단한 성공이에요. 따라서 저는 반드시 정의가 교육의 밑바탕이 놓여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방금 조 박사가 얘기한 ‘자부심’이라는 말도 굉장히 강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자부심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성경이 가르치는 위대한 사랑, 정의를 알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부족하지만 그것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 얼마나 멋지고 자랑스러운 것입니까? 이것은 교만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각자 이 자부심을 가지면 제정한 이익을

추구하지도 비겁하지도 않겠지요.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 학자들은 모두 근본적인 자부심을 가져라.”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김새별 자부심을 가진 그리스도인 학자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증명하고자 하는 바를 검증하는 데에 필요한 연구자로서의 능력을 잘 갖추되,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리낌이 없어야 한다는 점에서, 정직함과 유능함을 두루 갖춘 학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좋은 그리스도인이자 학자로 살기 위해, 저 자신이 지적 존재이기 전에 영적 존재라는 것을 계속 인지하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이어가되, 학술 활동에서도 엄격함을 유지하고 소홀함이 없게끔 부지런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학자는 특히 학술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덜 정직하고자 하는 유혹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발견한 것을 빨리 발표하고 싶고 단기간에 업적을 쌓고 싶은 마음에 조심성이나 엄격함이나 추후검증 없이 내 업적에 유리한 대로 결과를 종결을 시키지 않고, 주님 앞에서 정직하고 실력있는 연구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손봉호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 학자의 정체성에는 자신이 옳다고 믿거나 생각하는 것을 말과 행동을 통해 일관성 있게 실천하는 ‘인테그리티’(Integrity) 정직성이 포함돼 있지요. 그것을 잃어버리면 기독교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죠. 따라서 ‘인테그리티’는 모든 학자에게 아주 중요하고요. 사실 우리 한국 학자들에게 제일 부족한 것이 이것입니다.

박정우 지질학으로는 사회에 직접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생각하는 것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첫 번째로 명령하신 게 있어요. 모든 생물을 잘 ‘다스려라’ 이것이 영어로는 ‘매니지’(manage)로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이 ‘다스리라’는 말은 단지 다른 피조물을 착취하고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동안 너무 이 지구를 착취하고 이익 수단으로만 삼지 않았나 하는 부분이 안타깝고요. 그래서 지구환경과학 연구자로서 이런 부분들이 현재 일종의 덫처럼 옥죄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논문 다작을 위해 타협하지 않으면서 ‘인테그리티’를 잃지 않도록 한다는 겁니다. 사실 제 연구 과정을 학생들이 다 보고 있기에 그리스도인 학자가 세상과 구별되어 있지 않은 연구의 과정과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모습으로는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손봉호 네, 성경에서 땅을 정복하라는 것은 잘못된 번역으로 지금 신학자들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복’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히브리어 말로 ‘돌봄’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도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른 학자들이니까 여러분의 후배들에게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해서 하고 싶은 말씀 한마디씩 해주세요.

박정우 저는 지구과학을 하는 후배들이나 넓게는 자연과학을 하는 후배들에게 저는 이 말을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전지전능한 창조주 하나님과 그다음에 인간이 만들어 낸 이 과학의 유한함을 인지한다면 과학과 신앙은 결코 상충할 수 없습니다.

김섯별 저는 학업과 연구를 꿈꾸는 후배들한테 “모이기에 힘쓰라”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자는 일반적으로 조금 더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한 직업이란 점에서, 고립되거나 자신의 생각에 갇히기 쉬운 직업이기도 합니다. 그런 만큼,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가치관과 상충하는 현안에 대해 끊임없이 다른 이들의 의견도 듣고 열린 마음으로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수님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주셨듯이, 신앙이 있는 연구자, 교육자들이 계속적으로 학업

공동체로서 모이기에 힘쓰면서, 학문 세계 뿐 아니라 사회를 품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와 시너지를 길러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현준 경직된 근육을 조금은 이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산에 올라갈 때 나무가 왜 이 위치에 있고 왜 이렇게 생겼는지 고민하지 않고, 그냥 자연경관을 감탄하고 맑은 산소를 마시잖아요. 학문도 그 자체를 누리고 즐겁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탄성을 내뿜으셨잖아요. 우리가 너무 ‘기독교 세계관적 학문’을 한다는 이 분법에 갇히면 오히려 이 말이 또 다른 신앙의 계도화를 낳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조 세계인 전공 영역 자체를 누리고, 비신자들과도 대화를 나누며 기독교 세계관적 삶과 학문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조지혜 저는 우리 이웃과 학문 세계를 더 열린 마음으로, 편견 없이 바라보고 배워보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저의 경우 공부에서 한동안도 망쳤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결국은 이 모든 여정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누구든 “나는 왜 직진으로 가지 못하고 이렇게 에둘러서 갈까”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다면, 자신이 실패했다고 생각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나의 학문 여정을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잠잠히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손봉호 좋습니다. 오늘 저녁 저는 여러분과 대화하면서 굉장한 용기를 얻었습니다. “우리 세대보다 월등하게 우수하다. 신앙과 학문에 대한 태도도 상당히 건전하고 성숙해졌다.”라는 그러한 느낌으로 위로를 받았습니니다. 여러분 같은 분들이 좀 많이 일어나서 우리 한국 사회와 교육에 이익이 되고 특별히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 되고 또 우리 학계에도 크게 활약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FAITH & LIFE

무한 경쟁의 사회 속에서 여전히 찬송할 수 있는 소망을 노래하자

조예상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조교, 실행위원)



“요즘 시대는 비관주의를 넘어 nihil리즘이 팽배하는 것 같다...” 친하게 지내던 선배와 대화를 나누던 중 나온 이야기에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필자 역시 끝없이 경쟁과 자기계발을 요구하는 사회 속에서 소망을 갖기보다는 절망을 원동력 삼아 매일의 삶을 그저 열심히만 살아왔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 경쟁에서 뒤처지게 될 때 느끼게 될 좌절감 때문에 전전긍긍하며 그저 가야 할 길을 모른 채 경주마처럼 달려가고만 있었다는 생각이 뒤따랐다. 학교에서 조교로 일하며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필자는 끊임없는 입시의 굴레 속에 갇혀 있는 우리 청년들의 현실을 경험하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있다. 유년시절과 10대의 전부를 바쳐 대학 입시를 마친 요즘 대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마주하게 되는 것은 취업이라는 또 다른 입시의 관문이다. 이 때문에 대학에 들어온 학생들은 고등학교에서 내신시험으로 경쟁했던 것처럼 성적을 잘 준다는 소위 ‘꿀 강의’만 찾아서 듣게 된다. 이 경쟁에서 성공한 학생들은 로스쿨 진학을 준비하며 쾌재를 부르고, 학점을 잘

받지 못한 학생들은 성적이 좋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전문직종(요새 문과 대학생들에게는 공인회계사 시험이 유행이다.)을 찾아 나선다.

운 좋게 취업이라는 입시 관문을 통과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결혼이라는 또 다른 입시에 마주하게 된다. 사랑하는 두 사람이 만나서 약속을 하는 것이 무슨 부담이 되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단 한 번뿐’인 결혼식을 ‘누구나 다 하는 것 만큼’ 하려면 결혼식 행사를 준비하는 데 3,000만 원 이상의 돈이 필요하다. 그것 외에도 배우자의 외모와 직업이 어떻다느니, 신혼집은 어디로 구했다느니, 혼수는 어디 제품으로 했다느니 등등의 주제가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것을 감안하면, 결혼을 준비하는 비용은 어느새 사랑을 꿈꾸던 두 청년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가뿐히 넘어 서게 된다.

다행히 마음 맞는 사람과 결혼식을 치르게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청년들이 겪는 입시의 굴레는 끝날 줄 모른다. 임신하기도 어려워져 시험관 시술을 받느라 고통받는 부부들이 수없이 존재하고, 다행히 출산하

게 되더라도 산후조리원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다녔는가로 비교하고 경쟁한다. 아이가 조금씩 자라가면서는 육아용품은 어디 회사의 제품을 쓰고 있는지로 비교하고, 명품 유모차를 타고 있는지 확인한다. 아이가 커가면서는 영어 유치원을 보낼 수 있는 재력이 있는지를 바탕으로 경쟁하게 되고, 그 경쟁에 실패하는 부모들은 국공립유치원을 보내기 위해 사활을 걸어야 한다. 아이가 초등학교생이 되는 순간 또다시 부모가 12년 동안 겪었던 입시의 굴레가 자녀세대에서 다시금 반복되게 된다.

혹자는 서로 비교하는 굴레 속에서 빠져나가면 괜찮을 텐데, 왜 청년들이 그 속에서 힘겨워하고 있다고 반문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굴레에서 빠져나가기에는 비교와 경쟁이라는 덫이 우리 청년세대를 공고하고 교묘하게 짓누르고 있다. 어쩌면 학창시절 소위 '엄친아'(엄마 친구 아들)들과 자신을 비교하던 청년세대가 그 비교 대상을 내면화하여 이제는 '인친'(인스타그램 친구)들과 자신을 비교하게 되었을지도 모른다. 손가락만 움직이면 확인할 수 있는 인친들의 끝없는 성공신화와 행복한 모습에 잠식되어 내가 가야 하는 바를 알지 못한 채 그저 경쟁에서 한 발자국 더 내딛는 것을 나의 소망으로, 남들에게 잘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나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모습이 우리 청년들의 자화상이 아닐까 생각한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시 43:5)

결혼을 준비하면서 근원을 알 수 없는 두려움과 낙심이 임박할 때마다 곱씹고 있는 말씀이다. 42편에서부터 이어지고 있는 이 시편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

할 수 없는 외부의 상황을 조명하고 있다. 주변의 사람들이, 그리고 나를 찌르는 대적들이 비방하며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하고 있다. 원수의 공격과 조롱을 겪으며 하나님이 과연 나를 도우시는가의 의심이 들기도 한다고 노래한다. 그러나 시편의 저자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세 번이나 반복하여 강조한다. 그가 나타나 도우실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결심하며 또 한 번 더 결의를 다진다.

나의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내 앞에 있는 경쟁자만 바라보도록 추동하는 무한 경쟁의 사회 속에서, 내가 그리고 우리가 불려야 하는 소망의 찬송은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라는 고백이 아닐까 생각한다. 나아가 이 찬송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필자가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의 임원으로서 무언가를 제안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가 혼란스러운 사회 속에서 나타나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등대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제안하고 싶다. 나아가 무한 경쟁의 사회 속에서 여전히 찬송할 수 있는 소망을 노래하는, 그 소망을 전할 수 있는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가 되기를 기도한다. **FAITH & LIFE**



 글쓴이 조예상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조교이다.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학부와 석사과정을 졸업했다. 서울대 학부시절 서기연(서울대기독교인연합) 대표를 역임했다. 학부 때 선교단체(IVF)에서 배웠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고민을 학문적으로 발전시킬 방안 등에 대해 고민하고 있고, 특별히 장애인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연구에 관심이 많다. 현재 학과 조교로 근무하며 유학을 준비하고 있다.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청년 실행위원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산다는 것에 대한 고민과 실마리

고성중 (서울대 인류학과 석사과정)



부모님은 내 이름을 기록할 성(聖)과 노예 종(奴), 즉 '주님의 기록한 종'이라는 뜻으로 지어주셨다. 보통 우리나라에서 성종이라는 이름은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왕의 이름에서 한자를 빌려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부모님은 왕과 정반대의 사회적 지위를 가진 종(奴)이라는 한자를 사용하셨다. 그 이유는 세상 사람들처럼 성공이나 부를 추구하는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사람이 되라는 데 있다. 주님등록 등본에는 어떤 공무원이 한자를 잘못 쓰셔서 술병 종(鍾)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 늘 고민하던 질문들이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로마서 1장 1절에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한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떠올랐다. 종은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명령에 따르는 삶, 사도 바울처럼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세상에서는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 되어 모든 일을 스스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펼쳐나가야 한다고 가르치는데, 성경에서는 그런 사고방식이 잘못되었다고 가르친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일까? 학창시절에는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하는지와 관련해서 해답을 찾고자 했다. 가장 먼저 목회자의 길이 떠오르긴 했지만, 아버지가 개혁 교회 목회하면서 고생하시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봐서 고려대상에서 제외했다. 중학생 때는 선교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의 방식이라고 생각했다. <내려놓음>의 저자 이용규 선교사님을 비롯해서 여러 선교사님들의 간증을 접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들의 삶이 너무 귀하게 느껴졌기에 나도 본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일단 공부부터 열심히 하라는 부모님의 조언을 수용하여 언젠가 해외 선교를 경험해보겠다는 결심 정도로 마무리되었다.

고등학생 때는 사회복지사를 직업으로 가지면 고민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베트남 어 동아리를 하면서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고, 이를 통해 다문화 복지에 기여하고 싶다는 꿈을 키우기 시작했다.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직업을 통해 보람도 느끼고 이웃사랑도 실천하는 삶이 가능하지 않을까 정도의 결론이었다. 당시에는 이 정도면 충분히 명확한 해

답을 발견해냈다고 생각했다.

감사하게도 사회복지학과에 진학했지만, 생각보다 하나님의 계획은 당장 내 눈앞에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오히려 학부 생활은 모호함과 불확실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전공이 흥미와 적성에 잘 맞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다. 또한, 내 머릿속에 단순히 선한 일을 하는 것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 사이에 명확한 구별이 없었음을 깨달았다. 여기에 더해 나보다 지적 역량이 우수하고 열정과 적극성까지 겸비한 사람들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열등감과 자기 혐오에 시달렸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나라는 고사하고 사회에 내가 무언가를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인지조차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한창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고 방황하던 시기에, 불행 중 다행으로 인류학을 복수전공하고 있었다. 사회대 규정대로 졸업하기 위해서는 ‘복·부전’ 혹은 ‘심화전공’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했는데, 기왕이면 수업을 재밌게 들을 수 있는 분야를 복수전공 해야겠다는 생각에 인류학을 선택했다. 그밖에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 그런데 인류학 수업을 듣다 보니, 수업 내용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에는 편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 인류학은 타문화를 해당 사회의 행위자의 시각에서 바라봄으로써 다양한 문화의 존재 가치를 긍정하고, 자신이 속한 문화적 가치들을 절대적 진리로 여기지 않는 문화상대주의적 태도에 기반하여 연구를 수행한다. 인류학의 다원주의적 관점은 포스트모더니즘을 연상케 하는데, 이는 교회에서 반기독교적인 세상 문화의 대표주자로 여기던 것이 아니던가? 그렇다고 인류학이 기독교에 적대적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었다. 인류학 연구들이 반드시 포스트모더니즘을 지지하는 결론으로 이어지지 않을뿐더러,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학문적 관심과 주류 문화에 대한 비판적 접근은 오히려 성경적이기도 하다.

대학원 진학을 고민하던 중에 기독교 인류학 연구들을 접할 기회가 있었다. 관련 논문들을 읽으면서 인류학 자체는 기독교 복음에 적대적이거나 친화적이지도 않지만, 연구자가 어떤 가치관에 기초해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깨달았다. 즉, 어떤 현상을 바라볼 때 세상 가치관을 토대로 해석할 수도 있고, 성경적 가치관에 기초해서 하나님 나라 방식에 합당한 연구를 수행할 수도 있다. 이 지점에서 인생 고민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찾아가기 시작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한다는 것은 어떤 직업을 가진다는 차원을 넘어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성경적 가치관, 복음주의적 가치관을 가지고 소화해내는 삶의 방식에 더 가까운 것 같다는 결론을 내렸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로마서 12:2)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과 구분되지만 분리되지는 않는,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가 절실하다. 특히, 학문을 하게 되는 입장에서는 그런 지혜를 더욱 구하게 된다. 대학원 진학을 앞두고 설렘보다는 두려움이 더 크게 느껴지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신다는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내딛고자 한다. FAITH & LIFE



 글쓴이 고성종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대학원 석사 과정에 입학했다. 세부 분야로는 문화인류학을 전공할 계획이며, 기독교 공동체와 현대 사회 문화간의 관계에 관심이 있다. 서울대 CCC(한국대 학생선교회) 학생대표로 섬겼으며 현재 인천은혜교회 소속 청년이자 서울대 기독교대학원생 독서모임 멤버이다.

몽상가로서의 학자와 공몽이라는 가치 -허진호 감독의 영화 <천문 : 하늘을 묻는다>(2019)

이수향 (한국예술종합학교 강사)

‘학자’의 삶은 오래 배우고 공부한 바를 토대로 계속 새로운 이치를 이끌어내며, 때로는 그 구한 바를 다음 세대에 알려 주어 이어지게 하는 교양의 역할을 감당한다. ‘오래’라는 말과 ‘계속’이라는 말은 특히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정언 명령이 되는데 기본기를 갖추고 유지해 나가는 데에 시간이 필요하며 고통을 수반하는 불안정한 삶을 지속적으로 감당해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학자’는 또 한편으로 다음 단계로의 이동 즉, 쇄신에 대한 욕망과 그 가능성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는다는 점에서 ‘몽상가’(dreamer)들이기도 하다. 이들이 스스로 공구(攻究)하는 원리와 가치에 대해 꿈꾸기를 멈출 때 이들의 학자로서의 소임도 마무리되는 것이다. 김홍중에 따르면 미래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자동적으로 도래하는 것이 아니라 꿈꾸기를 통해 생산되고 분배되는 재화이고, 꿈은 개인의 소유물인 동시에 사회집단이나 장, 혹은 국가나 문명이 생산하여 제공하는 공공재로서의 공몽(共夢)이다.¹ 따라서 학자의 사적 욕망은 아카데미한 장(champ)과 사회적 시스템에 연관된다는 점에서 공몽과 공모한다고 볼 수 있다.

영화 <천문: 하늘에 묻는다>(허진호, 2019)는 우리가 익

1. 김홍중, “꿈과 사회”, <사회학적 파상력>, 문학동네, 2016. 197-252 참조.



영화 <천문>

히 알고 있는 조선 후기 실학자이자 과학기술자인 장영실의 일화들에 세종대왕과의 사적 관계성에 대한 상상력을 더해 만든 작품이다.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보기를 좋아하는 세종은 임금의 자리에서 항상 내려다보아야 하는 자신의 위치에 대한 고충을 토로하는데, 영실 또한



신문 탓에 늘 조아려야 하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반작용으로 별을 보기를 좋아한다고 고백하면서 두 사람은 신분을 뛰어넘는 공감대를 형성한다. 작품 속 장영실의 사적 욕망은 자신의 재주를 알아주고 면천시켜준 세종을 향해 있다. 그가 '자격루(물시계)'를 제작하고 천문관측을 위한 '간의'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면서 안여(임금의 가마)를 만드는 과정은 공구의 가치를 기술적 제작물의 완성도에만 둔 것이 아니라 세종이라는 '주군'에 대한 충성심에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말했듯 학자의 사적 욕망은 결국 원하던 원하지 않은 공몽 즉, 사회적 시스템의 문제와 요구를 결코 우회할 수 없다. 영실은 북극성이 주군의 별이며 그것이 자신에게는 세종이라고 말하지만, 조선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관에서 그것은 인정되기 어려운 것이었다. 북극성이 명나라 황제의 것이라고 말해야 하거나, 대신들이 명의 심기를 거스른다는 이유로 간의의 제작을 반대하는 것, 최만리 등이 한글 창제를 반대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었다. 하지만 “명나라가 없으면 조선이 망하

느냐? 조선은 조선만의 언어와 시간이 있어야 한다.”와 “저 많은 별들이 나의 백성들 같구나.”라는 세종의 말은 명을 중심으로 한 중화주의를 타파하고 조선을 중심에 둔 세계관으로 변혁하려는 인정 투쟁의 성격을 띤다. 그러므로 영실에게 자신을 희생하고서라도 이뤄야 하는 ‘전하의 나라’에 대한 소박한 꿈은 성리학적 명분론 대신 자주론과 실용적 가치를 내세우는 사상적 격돌의 소용돌이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이 영화의 영어 제목인 ‘Forbidden Dream’은 세종의 꿈이자 세종을 향한 장영실의 꿈이라는 점에서 둘의 사적 욕망은 역사의 장 안에서 공몽이 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루카치(Lukács György)의 <소설의 이론>처럼 “별이 빛나는 창공을 보고, 갈 수가 있고 또 가야만 하는 길의 지도를 읽을 수 있던 시대는 얼마나 행복했던가?”. 학문의 길에 들어선 학자로서, 특히 전공의 특성상 근래의 경제적 환산 가치로는 다소 ‘가성비’가 떨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인문학자로서의 추구하는 가치와 현실의 관계는 영화보다 훨씬 복잡한 구도에 놓여 있다. 다만, 학자로서의 사적 욕망과 사회적 공몽의 장안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꿈꾸기를 계속한다는 것, 그 지난한 노력의 지속이 중요하리라고 본다. **FAITH & LIFE**



글쓴이 이수향

한국예술종합학교 강사이자 영화평론가이다.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 과에서 박사학위(Ph.D)를 받았다. 영상물등급위원회 공연추천 소위원회 이며 문학과 영화, 연극 등 매체 비평 연구를 하고 있다. 기독교적 세계관을 다룬 작품들을 중심으로 소설과 영화의 매체 비교 연구를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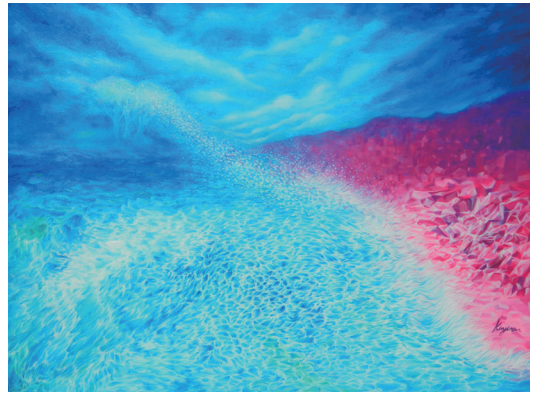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장윤희 (비영리 예술단체 엠카라 대표)

필자는 화가이자 임상미술심리상담사이고, 2019년 설립된 비영리 예술단체 '엠카라'(MQARA)의 대표로도 활동하고 있다. '엠카라'는 '기름을 붓다'라는 히브리어 동사 '마샤(Mashach)와 '외치다, 선포하다'라는 뜻이 있는 '카라'(Qara)의 합성어이다. 즉 '엠카라'는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술가가 기도하며 예술이라는 수단을 통해 광야에 외치는 행위이고, 동시에 우리 시대의 어둠을 알리고 시대를 바라보는 올바른 가치관을 제시하며 회복시키는 사명을 가진 단체이다. '엠카라'에 소속된 예술가들은 청년에서부터 자녀를 둔 부모들까지의 다양한 30~40대 여성 작가들이 뜻을 함께 하고 있는데 전업작가보다는 다른 직업과 병행하는 예술가들이 더 많다. 다시 말해서 예술활동에만 전념할 수 없는 형편의 작가들을 포함하여, 세상의 편견, 가치에 맞서야 하는 상황에서도 '엠카라'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고 순종하는 '기도하는 예술가들의 모임'이다.

주님은 언제부터인가 열방을 향한 중보기도 중 특히 북한을 위해 기도할 때 그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독재 정권에 의한 참혹한 인권유린을 예술을 통해 세상에 외치라는 감동을 지속적으로 주셨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상 주도 감동을 곧바로 실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몇 년이 지난 2019년 어느 날, 이러한 경험을 주변 예술가들과 나누었고 주님께서는 마음과 뜻이 같은 예술가들을 만나게 하심으로써 하나하나 그 뜻을 이루어가셨다. 그렇게 함께 모인 예술가들이 북한 관련 전시회를 준비할 때 단체를 만들어 활동하려는 감동을 이어서 주심으로 마침내 '엠카라'를 설립하

게 되었다. '엠카라'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북한인권전 : 고통받는 땅아 너는 빛으로 일어서라'라는 전시회였다. 여기서 작가 김지란은 작품 <모든 눈물은 씻겨 지리라>로 죽음의 땅에 생명의 물이 흘러 모든 눈물을 씻어주고, 생명의 물이 닿는 곳마다 다시 살아나기를 고대하는 마음을 표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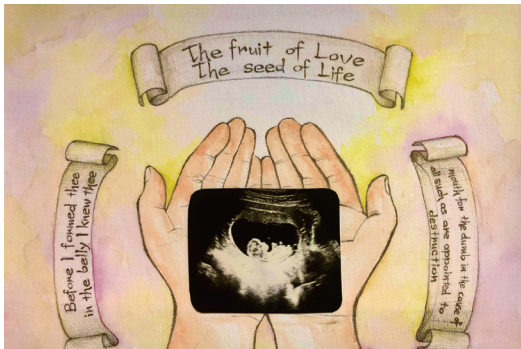
김지란 <모든 눈물은 씻겨 지리라>

작가 이미진은 작품 <결국에 무너져 내리다>로 차곡차곡 쌓은 탑에 빈틈이 생기면 와르르 무너지는 것처럼 북한 인권에 관한 목소리를 모아 외칠 때 북한 정권은 결국 무너져 내릴 것이라는 소망을 담았다.



이미진 <결국에 무너져 내리다>

두 번째 프로젝트는 '낙태법 폐지 반대 예술프로젝트 : 쿵쿵! 내 심장 소리가 들리나요?'라는 낙태 문제 관련 온라인 전시회였다. 태아를 생명으로 보지 않는 이 시대의 인권이 과연 누구를 위한 인권인가. 부모의 상황과 자기결정권을 태아의 생명보다 중요시하는 낙태허용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을 예술로 표현하였다. 작가 정다영의 <사랑의 열매, 생명의 씨앗>은 작가의 첫 아이가 '11주 2일' 되었을 때의 모습이 실제 담겨 있다. 아이는 온전한 사람의 형상으로 심장이 이미 살아 숨쉬고 있었다. 작가는 낙태죄 폐지 법안 중 '14주 태아의 낙태전면허용'에 관해 참담한 심경을 작품으로 표현한 것이었다.



정다영 <사랑의 열매, 생명의 씨앗>

그 밖에도 '엠카라'가 '블루플레이민아트'와 공동 프로젝트로 진행한 전시회 '너를 만났고,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는 동성애 이슈에 대해 직설적으로 표현하기보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어지는 가정의 신비로움과 아름다움을 주제로 기획되었다. 전시회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다'는 '낙태 · 고아 · 여성 인권(북한과 이슬람, 힌두교 문화권의 여성인권 침해)를 중심으로 · 성폭력 · 우울증 · 아동학대(부모에 의한 가스라이팅을 중심으로) · 고독사 · 북한인권'이라는 8가지 이슈에 대해 고통받는 이들을 공감하고 위로하며, 고통에서 자유로워지기를 소망하는 의미를 담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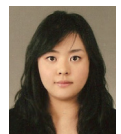
기획되었다.

2022년에는 특별히 성경적 세계관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근현대사에 대해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림 그리'는 프로젝트를 약 8개월 동안 실시하기도 하였다. 또 다른 프로젝트로는 '은혜 위에 은혜리라'라는 요한복음 1장 1~16절의 말씀을 주제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통해 누리게 된 놀랍고 신비한 은혜를 예술로 표현한 전시회가 있는데, 이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을 표현하는 행위, 즉 '엠카라'의 예배(worship)를 의미한다.

비영리 예술단체 '엠카라'의 모든 여정과 그 작품들은 하나님께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예술가들이 그분의 뜻에 순종함으로 맺어진 열매들이다. '엠카라'의 여정이 지금처럼 앞으로도 오직 하나님께 묻고 인도하시는 뜻에 순종하며, 이 시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예술을 통해 풀어놓는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FAITH & LIFE

 글쓴이 장윤희



서양화 전공으로 학사와 석사를 마친 후, 미술치료 전공으로 석사를 취득하였다. 예술단체 엠카라(MQARA)의 대표이고, 화가와 임상미술심리상담사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매체 in 미술치료>가 있다.

기독교 세계관 교육의 개념적 틀을 위한 기초

김수홍 (드리미학교 교사)



〈기독교적 가르침의 본질〉

브람 링크, 헝크 페르메일러, 브람 쿤츠 저 / 최용준, 이은실 역 / 김담복스 / 2023.

〈기독교적 가르침의 본질〉은 그 제목과 ‘간명한 학교 교수학’이라는 부제목에서 책의 정체성을 잘 드러낸다. 기독교적 가르침의 본질에 관한 책이라면 적어도 들기에 목직한 두께의 분량을 예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책은 120쪽에 불과해서 세워 놓으면 바로 쓰러질 정도로 얇다. 한 지면마다 들어가는 글자수도 많지 않아서 일반적인 책과 비교하면 100쪽도 안 되는 분량이다. 하지만 ‘차례’를 보면 이 적은 분량에 어떻게 이 많은 주제를 담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교육과 관련된 핵심요소들이 가득하다. 이러한 독특성은 아마도 그 출간 목적에 연유할 것이다. 이 책은 네덜란드의 ‘드리스타기독교학교’(Driestar Christian University)에서 기독교 교사들을 양성하기 위해 출간된 교재를 번역한 책이다. 즉 본서가 상정한 일차 독자는 예비교사들이다. 예비교사들에게 기독교 교육의 핵심이 되는 내용 중 빠뜨려도 될 만한 주제는 없을 것이다. 또한 수업 현장에서 같이 읽는 교재라면, 일일이 답을 주는 것보다는 학생들의 질문을 촉발하고 동료 및 교수와 대화를 나누도록 하는 것이 책이 맡은 더 중요한 역할일 것이다. 그래서 저자는 ‘서문’에서 독자들이 이 책에서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한 간결한 문장’들을 발견할 것이라

고 미리 경고한다.

본서가 답하고자 하는 질문은 “진정한 기독교 교육의 이상은 무엇인가?”이다. 어떤 교육이 진정한 기독교 교육이 되려면 어느 한 부분만 기독교적이어서는 안 될 것이다. 진정한 기독교 교육의 이상은 모든 영역의 구축이기에 교육 상황에서 벌어질 만한 모든 요소가 담겨야 한다. 다루는 주제가 포괄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위 질문에 답하기 위해 살펴보아야 할 영역을 담은 차례는 다음과 같다. 1장 ‘오리엔테이션’(기독교 교육의 목적 / 원천에게 인도받다), 2장 ‘교사와 학생’, 3장 ‘교육과정, 교수학 및 교수법’, 4장 ‘공동체로서의 학교’, 5장 ‘모든 교육이 다 같은 것은 아니다’. 이러한 영역을 통해 본서가 다루는 주제는 다음과 같다. “기독교 교사들은 그들의 교육에서 어떤 가치관을 기초로 두는가?”, “성경 이외에 기독교 교육에 영감을 주는 문헌들은 무엇인가?”(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아우구스티누스나 갈뱅이 쓴 기독교 교육에 관한 다른 책들), 그리고 “이것들을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가?”, “기독교 교육은 다른 접근들과 무엇이 다른가?”, “교사와 학생 그리고 교육의 내용 간의 관계는 무엇인

가?”, “이 점과 관련하여 교사들은 학생들을 위해 어떤 종류의 학습 환경을 만들어야 하며 어떻게 하는 것이 교육 내용을 기독교적으로 제시하는 방법인가?”, “교사들은 어떻게 기독교 세계관을 설명하며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가?” 등이다. 모두 기독교 교육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볍게 지나치지 못할 매력적인 주제들이다.

그러나 이 책은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자 하는 독자에게 그다지 친절하지는 않다. 기독교 교육의 본질과 관련된 핵심요소에 대해 더 많은 사람이 ‘비판적으로 참여’하여 ‘열매 맺는 대화’를 나눌수 있도록 설명을 과감하게 줄였기 때문이다. 가령 ‘기독교 교육의 목적’이라는 주제 아래는 ‘방향’, ‘만남’, ‘지식의 습득’, ‘두 도로’, ‘소망’, ‘두 단어’, ‘기대’라는, 듣기만 해도 궁금하고 더 알아보고 싶은 7개의 소주제가 나오는데, 정작 이에 관한 설명은 5쪽에 그친다. ‘교육과정’이라는 주제 아래는 ‘조화와 깨어짐’, ‘하나님의 실제’, ‘풍부한 다양성’, ‘폭넓은 형성’, ‘종교적·영적 형성’, ‘도덕적 형성’, ‘심미적 형성’, ‘사회-정서적 형성’, ‘시민으로서의 형성’, ‘제한된 지식’이라는 10개의 소주제도 10쪽에 설명한다. ‘교수학’의 7개 하위주제인 ‘발달’, ‘독특성’, ‘책임감’, ‘관계성’, ‘학습환경’, ‘조직’, ‘권위’도 3쪽에 설명을 마쳤다. 하지만 이런 짧은 설명 덕분에 ‘교육의 목적’, ‘교육과정’, ‘교수학’이라는 큰 주제들이 어떤 핵심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다. 설명이 자세하지 않으니 언급된 개념이 무엇인지 스스로 고민해보고 다른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하게 된다. 가령 교육의 목적을 “학생들이 세상을 이해해 가면서 경외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라고 한마디로 정의하고 넘어간다. 그렇게 되면 ‘세상’이라는 대상은 어디까지인지, ‘이해’란 무엇이고 어떤 단계가 있는지, ‘경외감’은 무엇이고, 대상에 따라 종류가 달라지는지, ‘교육’과 ‘경외

감’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등의 많은 질문과 이야기거리가 생긴다.

기독교 학교 현장에 있는 교사로서 필자가 본서를 읽으면서 든 가장 큰 생각은 든든함이다. 신앙 고백서처럼 간결한 문장으로 교사가 가야 할 길을 분명하고 간결하게 제시해주어 내가 가는 길에 대한 의미를 재차 확인하고, 그 길을 잘 가고 있음에 격려받을 수 있었다. 기독교 교육에서 핵심이 되는 내용 전체를 스캔하듯이 훑고 지나가니, 불분명하여 말하지 못했지만 나를 불편하게 했던 부분이 어디인지 알고 고민할 수 있었다. 저자들은 교실에서 혹은 교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기에 다른 사람들은 모를 법한 일들을 드러내어 이야기하는데, 나의 상황을 같이 겪었기에 아주 잘 알고 있는 내 편이 해주는 조언처럼 느껴져 편안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은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좌락된 현실의 많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교육이 희망적일 수밖에 없다는 메시지를 반복한다. 이것은 내가 겪는 기대와 두려움의 괴리가 당연한 것이고, 결국에는 이기는 시합에 뛰어드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상기시켜 주었다. 필자는 본서를 동료 선생님들과 같이 읽으며 가장 기본적이지만 중요한 개념들을 가지고 토론할 것이 벌써 기대가 된다. 본인 혹은 본인의 교육 공동체가 예수님을 향해 있는지 점검하고 싶은 모든 분에게, 이 얇은 책 한 권을 적극 추천한다. **FAITH & LIFE**



 글쓴이 김수홍

기독교대안학교로서 천안시 병천에 소재하고 있는 드림미학교의 교사이다. 기독교 세계관, 소망, 세계 교육 여행, 사색과 독서, 드림 사례 연구 등의 수업을 하고 있다. 학생들의 중요한 고민이 드러날 때, 옆에서 이야기 나눠줄 수 있는 교사로 남기를 희망한다.

나들목하늘교회, 계속되는 신앙과 삶, 통합의 꿈!

신호기 (나들목하늘교회 담임목사)

필자는 대학시절인 1980년 중·후반 신앙과 세상의 통합을 이루기 위해 몸부림치다 '기독교 세계관'을 만났다. 먼저 송인규 교수의 <죄 많은 이 세상으로 충분한다>(IVP)라는 소책자는 통합된 신앙의 숨통을 틔게 했을 뿐 아니라 기독교 세계관 공부에 불을 붙였다. 곧이어 프란시스 셰퍼의 <고뇌하는 그리스도인>을 만났다. 대학 중앙도서관에서 이 책을 읽으며 진한 눈물을 흘리던 그 날의 감동이 아직도 기억난다. 대학 졸업 후에는 기독교대학설립동역회(현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하 동역회)를 만나 함께 공부하며 동역자들과 교제하는 기쁨을 맛보았다. 동역회 전임간사(1990-1992) 시절에는 기독교 세계관 운동의 최전선에 있는 많은 회원과 동역하는 보람을 누렸다. 특별히 동역회 대표 교수와 간사들이 함께 예수원에 대천덕 신부를 동역회 이사장으로 모시기 위해 찾아간 일이 기억난다.

동역회 사역을 마치고는 한국기독교학생회(IVF)에서 간사로 14년, 나들목교회에서 8년간 사역자로 섬겼다. 그리고 2013년 분립 개척된 나들목하늘교회에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다. 나들목하늘교회는 4가지 가치로 교회를 세우려고 한다. 1) '찾는 이'(비그리스도인)를 찾아 섬기는 공동체, 2) 개인주의적 신앙생활이 아닌 함께 삶을 나누는 진실한 공동체, 3) 이원론적 영성이 아닌 균형 있는 성장을 추구하는 공동체, 4) 기복주의가 아닌 안팎의 변혁을 추구하는 공동체. 이 가치들은 대천덕 신부님께 배운 4가지의 균형 잡힌 영성, 즉 '말씀의 영성', '성령의 영성', '묵상의 영성', '변혁의 영성'으로 추구하고 있다.

먼저 '말씀의 영성'은 하나님 나라 복음 신학으로 말씀을 해석하고 전하며, 진실한 공동체를 추구하는 가정교회에서 말씀 중심으로 진실한 삶의 나눔을 통해 세워진다. '성령의 영성'은 기도학교를 통해 실제로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기도를 훈련하며, '변혁의 영성'은 현대사회 이슈들을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에서 정리하는 강의들로 훈련해 왔다. 대표적으로 한국 라브리 성인경 목사의 '현대사회문화에 대한 기독교적 답변', '소명과 비전에 대한 기독교적 답변', '냉소주의에 대한 기독교적 답변', '정서적 지적으로 고뇌하는 현대인에게'가 있고, '놀이미디어교육센터'의 권장희 소장의 '스마트미디어 시대 창조적 형상의 회복'이 있으며, '돈 걱정 없는 우리집 지원센터' 김의수 센터장의 재정특강이 있다. 코로나19 시국에서는 총신대 신국원 교수의 '코로나19 시대 기독교 세계관으로 무장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강의로 기독교 세계관을 배웠다. '묵상의 영성'은 초대교회 때부터 내려오는 영성 훈련의 자산인 '렉시오 디비나'(Lectio Divina)를 통해 훈련한다. 수요일에 복음서 본문으로 성도들이 각자 묵상 후 함께 말씀을 나누며, 정기적으로 가평 필그림 하우스에서 1박 2일 영성 피정의 시간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필자는 대학 학창시절부터 꿈꿔왔던 신앙과 삶의 통합이 시간이 지나면서 삶과 사역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열매 맺혀가고 있음에 감사를 드린다. **FAITH & LIFE**



✍ 글쓴이 신호기

나들목하늘교회 담임목사(2013~현재)이다. 건국대 경영학과, 총신대신학대학원(M.Div)을 졸업했고, 현재 햇빛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에서 영성신학 석사과정(Th.M)에 있다.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전임간사(1990-1992), 한국기독교학생회(IVF) 간사(1993-2005), 나들목교회 사역자(2006-2013)를 역임했다.

나들목하늘교회 기독교 세계관 교육 - 수료자 소감문


전혀 다른 공동체, 나들목하늘교회



8년 전, 군 전역을 앞두고 친구를 따라 나들목하늘교회에 방문하였다. 뜬금없이 평일 저녁 갑작스럽게 방문한 불청객! 교회에서 저녁을 시켜 먹고 자모실에서 자고 가겠다는 당돌하고도 낯선 청년에게 목사님께서서는 “그래, 즐겁게 놀다가거라.”라고 웃으며 말씀해 주셨다. 나는 이 환대를 받고 전역 후 자연스럽게 나들목하늘교회에 출석하게 되었다.

처음 나들목하늘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을 때 나는 예배를 ‘교육의 장’으로 생각하였다. 설교를 들으며 새롭게 알게 된 성경 해석에 감탄하며, 소그룹 나눔 시간도 다른 사람의 성경 해석을 배우려는 태도로 임했다. 하지만 설교 시간 목사님께서서는 예배는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고 말씀해 주셨다. 그 순간 내가 드리는 예배의 초점이 ‘배움’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로 옮겨졌다. 예배의 의미를 교육에 두면 새로운 배움에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한다. 하지만 예배의 의미를 하나님과의 교제에 두면 그 예배는 실패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을 반드시 만나주시기 때문이다.

나는 이처럼 환대받은 경험과 예배의 회복을 통해 나들목하늘교회의 중심가치인 ‘찾는 이 섬김’과 ‘소망하는 예배’가 무엇인지 몸소 경험할 수 있었다. 또한 부모와 자녀가 한데 모여 떡을 떼고 말씀을 나누는 소그룹 가정교회 예배를 통해 또 하나의 중심가치인 ‘진실한 공동체’를 몸소 알아갈 수 있었다. 지역사회 어르신을 섬기는 활동과 같은 마을에 있는 북한이탈주민학교를 품고 섬기는 활동을 통해 ‘안팎의 변혁’이라는 중심가치에 뜻을 두고 지역사회 어린이를 섬기는 비전을 품게 되었으며, 리더 훈련, 수요일예배 목상 지도, 기도학교 등을 통해 ‘균형 있는 성장’의 중심가치를 경험할 수 있었다. 나는 교회를 사랑하게 되며 이 공동체를 전수하고자 다음 세대 팀에서 봉사하게 되었다. 또한,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고자 정기적으로 모이고 있는 ‘하늘소망 부모학교’에서도 강사로 섬기며 선배 학부모님들께 자녀교육에 대하여 함께 배우는 시간을 가진다. 세상에 살아가지 세상 속하지 않은 전혀 다른 공동체, 오늘도 나들목하늘교회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예배하며 살아간다. **FAITH & LIFE**

 글쓴이 정승진



나들목하늘교회 주일학교 교사이다. 경인교육대학교,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교육대학원을 졸업했다.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교육에 비전으로 공교육과 교회 교육, 학부모 교육에 힘쓰고 있다. 현재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다.

헤르만 도여베르트의 기독교 세계관(4) - ‘법과 피조물’의 의미



20세기 기독교 세계관 철학자 중, 네덜란드의 헤르만 도여베르트(Herman Dooyeweerd, 1894-1977)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 중 한 분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는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 1837-1920)가 정립한 성경적 세계관의 바탕 위에서 피조 세계를 가장 일관성 있게 설명하려고 시도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의 철학이 완벽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여러 면에서 그의 철학은 비판을 받았고 동시에 그의 제자들에 의해 더욱 발전되었다. 하지만 적어도 그의 사상은 반드시 한번 검토할 가치가 있다. 대가의 사상을 연구한다는 것은 곧 그가 씨름한 서양 철학 전체를 그의 눈으로 살펴보는 것이고 그가 기독교 철학자로서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에게도 성경적이면서도 비판적 관점들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필자는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기관지 <신앙과 삶>의 ‘온전한 지성’ 지면을 통해, 도여베르트의 기독교 세계관 사상을 5회에 걸쳐 간략히 나누고 있다.

도여베르트 철학을 이해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키워드는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경계로서의 법(wet: law)과 그 법에 종속된 모든 피조물이다. 히랍 철학자들도 이 세상 만물에는 ‘질서’가 있음을 알았다. 이것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 금방 관찰할 수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문제는 인본주의 철학이 ‘법’ 자체를 절대화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세계관과 종교에는 ‘도(道)’ 또는 ‘리(理)’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간다. 가령, 천도교(天道敎), 천리교(天理敎), 도교(道敎) 등을 들 수 있는데 이것은 모두 만물의 법 자체를 절대시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여기에 대해 도여베르트의 독특한 점은 그 법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그 법은 반드시 그 법을 제정한 분(law-Giver)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나아가 도여베르트는 각 양상 영역에서 두 가지 면을 말한다. 즉 법칙 면과 종속 면이다. 가령 경제적인 면에서 연필의 생산은 경제적인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따르지 않을 수 없다. 바로 여기서 수요와 공급의 법칙은 경제적 양상의 법칙 면이며 연필은 그러한 양상에 종속되는 것이다. 그러나 법의 가장 심원한 본질 및 궁극적 내용은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 사랑의 표현과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그분의 요구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종속적이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법-종속’의 관계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사랑의 법 앞에서 너무나 소중하며 본질적 의미로 찬탄하다는 것을 뜻한다. 요컨대 이러한 ‘법-종속’ 개념 역시 하나님께서 그의 피조 세계에 매우 친밀하게 내재해 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창조주는 법을 제정하셨기에 그 법을 초월하며 그 법을 바꾸실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의 신실함으로 인해 그 법을 지키시며 동시에 그 법에 종속된 피조물들을 사랑하신다. 우리 인간도 창조주에게 영광을 돌리며 이웃을 섬기기 위한 목적으로 학문 활동을 하여 이 주어

진 법을 올바르게 연구하고 적용할 때 창조주의 지혜를 닮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마치 조각가가 자신의 조각 작품 속에 자신의 형상을 투영시키며 자신의 혼을 심듯이 만물을 초월하시는 창조주께서도 자신의 작품인 피조 세계에 친히 함께하시며 교제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이다. 이러한 창조주의 초월성과 내재성을 동시에 인정하며 균형을 맞추는 것은 인본주의적 세계관과 철학을 올바르게 분별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각 양상은 그 자신의 독특한 법칙에 따라 질서 지워지고 결정된다. 그러므로 도어베르트는 양상들을 ‘법칙 영역들’이라고도 불렀다. 분석적 양상에서 신앙적 양상까지를 그는 ‘문화적인 면’이라고 부르며 그 법칙들은 ‘규범들’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는 이 법칙들은 사람들에 의해 ‘인정되고’, ‘실증되어야’ 하기 때문이며 이 법칙들은 지켜질 수도 있고 어겨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인간의 문화적 책임과도 연결된다. 사람이 각 양상에 주어진 하나님의 법칙들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할 때 인간의 모든 문화 활동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이웃을 섬기는 방향으로 개현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문화는 파괴적이 되고 결국 헛수고로 돌아간다. 분석적 양상 이하 양상들의 법칙들은 ‘자연법’이라고 불리는데 그 이유는 이 법칙들은 어길 수 없기 때문이다. 나아가 앞서 말한 바처럼 각 양상은 상호 환치될 수 없는데 이것을 그는 ‘영역 주권’(sovereiniteit in eigen kring; sphere sovereignty)의 원리라고 불렀다. 이것은 그가 카이퍼의 영역 주권 사상, 즉 그리스도께서 모든 영역의 주되심을 더욱 깊이 있게 다루면서 철학적, 우주론적 원리로 확장한 것이다. 각 양상은 그 ‘의미의 핵’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각 양상의 특징을 규정한다. 가령, 생물적 양상의 의미의 핵은 생명력(vitality) 혹은 생명(life)이다. 각 법칙 영역에 있어 다른 법칙 영역을 지향하는 의미의 모멘트, 즉 예기와 회기가 있는데 이것을 통틀어 ‘유추’(analogy)라고 한다. 바로 이러한 점을 그는 각 양상의 ‘영역 보편성’(sphere-universality)이라고 불렀다. 즉, 각 영역은 독립적인 영역 주권을 가진 동시에 고립되지 않고 서로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시간관 못지않게 독특한 것이 ‘마음’에 대한 도어베르트의 입장이다. 1932년에 그는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처음으로 성경의 잠언 4장 23절과 연결해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는 피조물의 초시간적인 뿌리는 시간 내적인 실재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추론적 기능에 있는 것도 아니라 인간의 종교적 뿌리인 마음에 있다고 가르쳤다. 따라서 그에게 있어 ‘마음’은 모든 양상을 초월하는 집중점 또는 초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마음은 인간의 삶에 있어 중심적인 ‘관계’, 즉 인간의 근원(Origin)과의 관계(religio)를 의미하며 이것이 곧 종교(religion)의 뜻이라고 말한다. 바로 이 절대적인 근원을 향한 인간의 마음에서 인간의 삶 전체의 ‘방향’이 결정되는 것이다. 이러한 마음에 대한 아이디어는 그의 인간학에서 기초가 되며 그의 철학이 독특한 성경적 철학이 되게 하는 부분이다. **FAITH & LIFE**



글쓴이 최용준

한동대 ICT 창업학부 교수이다. 서울대 사회복지학과(B.A), 미국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M.Div), 네덜란드 자유대학교(Drs.), 남아공 포체스투름대학교(Ph.D, 기독교철학)에서 공부했다. 독일 퀘른한빛교회와 브뤼셀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동대 학문과신앙연구소 소장을 역임했다. 저서로 <도전하는 현대의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 강의>, <세상을 변화시키는 학문> 등이 있다. 현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실행위원으로도 섬기고 있다.

2023년 임원 가족 수련회(6월 9일, 금, 낮 12시~저녁 9시)

장소 : 청남대 & 대전 호텔스카이파크 회의실

내용 : 18명의 이사, 실행위원, 학회 임원진이 참석하여 교제 및 동역회의 미래 사역방안 논의

2023년 기독교학문연구회 춘계학술대회(6월 10일, 토, 오전 10시~오후 6시)

주제 : 기독교인, ChatGPT를 어떻게 볼 것인가?

장소 : 배재대학교 국제교류관 아트컨벤션홀

주제강연 : 권오욱 박사(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박해정 교수(연세대 의학과),

김정형 교수(연세대 신학과), 고세일 교수(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 주제강연 동영상 :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

분과발표 : 총 6개 분과 24개 논문이 발표와 논찬자 논평, 질의응답이 어어짐

* 새로남학술청년논문상(상금 50만 원) : 정윤재(침신대 신학대학원)

2023년 <청년 영상·미디어 아카데미>(8주 과정) 진행 중

일시 : 2023년 7월 4일~8월 29일(매주 화요일, 8주간)

강의 : 기획(1주), 장비의 이해(1주), 사진/촬영 기초(2주), 시각 커뮤니케이션(1주), 편집 기초(2주), 실습 & 비전 나눔(1주)

장소 : CTS 빌딩 9층 *현재 참석인원 10명, 등록비 : 일반 8만 원, 대학생 & 대학원생, MK 6만 원

주최 :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사)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주관 : KWMA 문화예술선교실행위원회, 한국거점미디어 M센터, Next M

등재학술지 <신앙과 학문> 28권 2호(6월 30일 발간)

<신앙과 학문> 28권 2호는 이월 재심논문 1편과 10편의 논문 투고 중에서 총 7편이 게재되었다.

(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조직 및 임원

사단법인 이사회

명예 이사장 손봉호(서울대 명예교수)

이사장 신국원(총신대 명예교수)

이 사 박문식(한남대 교수), 박영주(미드웨스턴 신학대 교수), 유재봉(성균관대 교수), 최현일(샘병원 의사), 양성만(우석대 교수), 조성표(경북대 교수), 장수영(포항공대 교수), 정희영(총신대 교수), 최태연(백석대 교수), 오정호(새로남교회 목사)

감 사 김태황(명지대 교수), 문준호(코아시아옵틱스 연구위원)

실행위원회(*표기는 신임, 임기 : 2023.01.30.~2025.01.29.)

실행위원장 박동열(서울대 교수)

실행위원 강진구(고신대 교수), 김기현(로고스서원 대표), 김미영(사람과삶 대표), 김예원(VIEW 간사), 김지원(백석대 교수), 김혜정(CUP 대표), *김태황(명지대 교수), 문준호(코아시아옵틱스 연구위원), 석종준(서울대 캠퍼스 선교사), *이병주(기독법률가회 대표), *안승범(경희대 교수), 이상민(교육학자), 유경상(CTC 대표), 윤현준(숭실대 교수), 이재희(가천대 교수), 장승기(높은뜻씨앗스쿨 교감), *조예상(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조교), 최윤준(한동대 교수), 황혜원(청주대 교수)

기독교학문연구회

학회장 김태황(명지대 교수)

연구부학회장 고세일(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학술부학회장 김지원(백석대 교수)

기획부학회장 김철수(조선대 교수)

총 무 오민용(스마트스디지털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감 사 류현모(서울대 교수), 이명현(인천대 교수)

<신앙과 학문> 편집위원장

박해일(경희대 교수, 뇌과학)

<신앙과 학문> 편집위원

권오병(경희대 교수, 경영학), 김동혁(연세대 교수, 구약학), 김성원(서울신대 교수, 조직신학), 김철수(조선대 교수, 영문학), 박원근(이화여대 교수, 국제어문학), 송재일(명지대 교수, 법학), 신용철(숭실대 교수, 서양철학), 안소영(경상대 교수, 국제경제학), 염동한(부산대 교수, 물리교육학), 이은실(한동대 교수, 교육학), 임춘택(제주대 교수, 독문학), 조은주(고신대 교수, 간호학), 허계형(총신대 교수, 유아교육학), 황혜원(청주대 교수, 사회복지학)



▶ **VIEW**(전성민 대표)

1) VIEW(Vancouver Institute for Evangelical Worldview, 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 Academic Programs 안내

- Master of Arts – Christian Worldview Studies (Korean) 기독교 세계관 문학석사
졸업 이수 학점: 53학점(2.5~3년)
- M.Div in Worldview and Peace Studies (Korean) 세계관 및 평화학 목회석사
이수 학점 및 예상 수강기간: 89학점 / 3.5~4년
- Graduate Diploma–Christian Worldview Studies (Korean) 기독교 세계관 디플로마
졸업 이수 학점: 35학점(1.5~2년)
- 온라인과정 : 밴쿠버 전일제 학생 등록이 어려운 분들은 한국이나 해외에서 온라인으로 VIEW 과정을 수강 및 졸업할 수 있다.

※ 2023 학교 설명회 안내

시간 : 2023년 8월 7일(월) 오후 6시

장소 : 성서유니온 사역국(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 46길 26-1 신화빌딩 2층)

※ 참석 신청은 문자(010-5154-4088)로도 가능하다.

▶ **CTC**(유경상 대표)

1) CTC 온라인 사역

- 기독교세계관교육 지도자 과정 : 4기 기본과정, 3기 강사과정 진행 중
- 부모 교육 : '월드뷰패밀리아카데미'(기독교세계관으로 <살롯의 거미줄> 읽기) 종강
- 다음 세대 교육 : '하이세 아카데미'(미디어세계관학교), 어린이 & '청소년 월드뷰패밀리아카데미'(살롯의 거미줄) 종강

2) CTC 교회 사역

- 삼일교회(송태근 담임목사) : '미디어세계관학교' 종강
- 성광교회(남세주 담임목사) : '성품세계관학교' 종강
- 수영로교회(이규현 담임목사) : '생각코칭 세미나', '부모교사세계관학교' 종강
- 수영로교회 나니아세계관캠프(8월 7-9일)

3) CTC 캠퍼스 사역

- 아신대학교 <기독교세계관> 과목 종강
- * 신청 및 문의 : CTC 사무국(010-9326-8439) & 홈페이지(www.ctcworldview.com)

▶ **도서출판 CUP**(김혜정 대표)

신간 소개



<쉽게 풀어쓴 세계관 특강> 손봉호 지음 | 312면 | 15,000원 | CUP

왜 다시 세계관인가?

모든 사람은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그 세계관에 따라 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이다.

본질을 꿰뚫는 철학자의 통찰력

우리는 어떤 세계관으로 생각하고, 보고 듣고, 살아가야 하는가?

세계관은 유행처럼 지나가는 개념이 아니다.

손봉호 교수(서울대 명예교수)는 우리나라에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개념을 거의 처음 소개한 분이 다. 철학자의 섬세한 시각과 통찰력으로 시대의 흐름과 사회적 방향성, 삶 속에 어떤 방식으로 세계관이 작용하는지를 친절하면서도 논리정연하게 설명한다. 간결하면서도 골골히 배어있는 철학자의 시선과 공적 사역을 감당하는 선구자적 비전을 만날 수 있다.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재정정보고 (2023년 5월, 6월결산)

수입 항목	세부 항목	2023년 5월	2023년 6월	지출 항목	세부 항목	2023년 5월	2023년 6월
경상수입	이사회비	670,000	600,000	인건비	일반급여	5,300,000	5,300,000
	임원회비	650,000	500,000		기타급여	400,000	400,000
	일반회비	3,935,000	4,270,000		소계	5,700,000	5,700,000
	기관후원금	2,700,000	2,900,000	경상비	사무실임대료	850,000	850,000
	월드뷰후원금	0	0		사무실관리비	400,398	405,546
	사무실후원금	0	0		통신비	161,862	162,257
	CTC후원금	60,000	60,000		우편료	4,500	0
	VIEW후원금	1,165,000	1,165,000		소모품비	0	0
	기타후원금	0	0		비품	0	0
	월보구독료	616,000	433,500		식비	344,410	298,610
	학술지원금	0	0		수선비	0	0
	세계관사역지원금	0	0		복리후생비	997,090	888,450
	기타	240	30,250		퇴직연금	426,280	426,280
					회계용역비	385,000	55,000
			여비교통비		0	0	
			사무비		79,110	55,000	
			기타(지급수수료)		118,151	140,380	
			소계	3,766,801	3,281,523		
기타수입	일반이자	0	11,643	연구지원비	CTC후원금	59,725	59,725
	법인이자	0	0		VIEW후원금	1,165,045	1,165,045
	법인세환급금	0	110		소계	1,224,770	1,224,770
	기타수입	0	0	출판(회지)	인쇄비	0	2,659,800
	기금차입	0	0		발송비	50,000	638,560
	결산이자	0	0		홈페이지/홍보비	0	70,000
	예수금	457,570	467,480		소계	50,000	3,368,360
				기타	세금	0	0
			잡비		800	800	
			소계		800	800	
세계관아카데미	세계관일반등록	-	600,000	세계관아카데미	세계관강사료	-	52,700
	세계관기타수입	-	-		세계관행사준비	-	226,200
					세계관기타		2,511,920
소계	-	600,000	소계		-	2,790,820	
학회	학회이사회비	120,000	110,000	학회	학회강사료	0	1,678,000
	학회행사수입	600,000	680,000		학회자료제작비	0	654,000
	자료집판매	0	0		학회홍보및기타	346,000	1,048,650
	학회지판매	0	0		학술지인쇄비	0	0
	학술지심사비	0	0		학술지발송비	0	0
	학술지게재료	0	2,770,000		학술지심사료	0	0
	저작권료	0	0		학회조교비	0	0
	학회기타수입	0	1,000,000		학회기타	0	0
	소계	720,000	4,560,000		소계	346,000	3,380,650
전월 미수금	전월 CMS입금	1,024,520	1,006,900	차월이월 수입금	이달 CMS미수금	1,006,900	1,048,965
	전월 이니시스 입금	0	0		이달 이니시스 미수금	0	10,000
	소계	1,024,520	1,006,900		소계	1,006,900	1,058,965
당월 수입액		11,998,330	16,604,883	당월 지출액		12,095,271	20,805,888
전월 이월액		32,668,952	32,572,011	차월 이월액 (잔액)		32,572,011	28,371,006

* CMS, 이니시스등 입금여부를 명시하여 당월 현금시제와 재정정보고서 금액이 일치합니다.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회원후원

(2023년 5월)

3천 김성권, 3천5백 광도명, 김봉현, 김셋별, 김성욱, 김성호, 김정영, 김형근, 김희원, 생명의강, 손영일, 장재수, 장현정, 전은경, 조성진, 지경순, 진성자, 최원길, 하태실, 5천 강대웅, 공승건, 구성덕, 권지연, 김경희, 김기웅, 김기현, 김대웅, 김상욱, 김성찬, 김승택, 김정명, 김정성, 김태영, 노승욱, 박광재, 박해조, 범경철, 손영경, 송시섭, 신종철, 오경숙, 유종열, 이경미, 이기훈, 이길수, 이덕재, 이수인, 이원제, 이인수, 이종혁, 이지영, 이향숙, 임소연, 임형준, 장현일, 전보규, 정진우, 주성택, 최광수, 최동희, 최수아, 최영태, 한배선, 홍승기, 7천5백 강찬진, 박상근, 방선기, 손화정, 이경우, 이은순, 전영식, 진영규, 1만 강연희, 강은정, 강혜영, 고길현, 고선숙, 고용재, 고철웅, 권경호, 기민석, 김원평, 김경진, 김경호, 김광태, 김규욱, 김남진, 김농우, 김도형, 김동연, 김민성, 김병국, 김병재, 김병철, 김봉수, 김보애, 김상범, 김상욱, 김셋별, 김성규, 김성인, 김성진, 김세경, 김수빈, 김수진, 김수홍, 김신정, 김아람, 김아름, 김연진, 김영규, 김영숙, 김영용, 김영호, 김용석, 김유니스, 김윤권, 김은덕, 김은태, 김재완, 김재정, 김정보, 김정준, 김정철, 김정보, 김종일, 김종철, 김좌남, 김주영, 김지근, 김진성, 김철수, 김태룡, 김혁, 김현정, 김혜정, 김홍빈, 김화선, 남선우, 라영환, 류지호, 류진호, 류현모, 류화원, 모상근, 모아론, 박능안, 박동현, 박상희, 박승호, 박시운, 박안나, 박원근, 박준우, 박준모, 박지현, 박진규, 박현민, 박혜경, 박희주, 배아론, 배지연, 백경은, 백요한, 부천평안교회, 빛과소금교회, 사호행, 서화진, 성기진, 성영은, 소진희, 손하은, 손현탁, 송아영, 송은희, 송철호, 신성만, 신찬용, 신현정, 신현주, 신호기, 심은희, 안병일, 안석, 안성희, 안승범, 양성근, 양성철, 양승우, 양행모, 양영태, 연혜민, 엄동한, 오민용, 오성호, 오익석, 오주희, 오지석, 유건호, 유기남, 유상원, 이상한, 유승민, 유영준, 유재은, 유해무, 윤상현, 윤숙자, 윤영배, 윤재림, 윤태형, 윤현준, 윤혜림, 이강, 이경직, 이길형, 이다니엘, 이명동, 이명복, 이명진, 이명현, 이병수, 이병주, 이봉근, 이상수, 이상진, 이상희, 이선경, 이선복, 이성근, 이성미, 이성수, 이세정, 이수연, 이수형, 이순진, 이승미, 이인수, 이신영, 이아름, 이연규, 이연희, 이영미, 이요한, 이우훈, 이원도, 이원준, 이윤석, 이윤재, 이윤택, 이윤희, 이은미, 이정기, 이정나, 이정욱, 이정일, 이종철, 이종섭, 이지원, 이진희, 이창훈, 이혜리, 이행로, 이희진, 임동진, 임상희, 임수복, 임지연, 임춘택, 장경근, 장승기, 장승화, 장은혜(양종태), 장인숙, 장창수, 장태준, 전명희, 전성규, 정다은, 정동관, 정봉현, 정선경, 정영수, 정용수, 정재섭, 정희원, 제양규, 조경덕, 조명자, 조미연, 조성국, 조성근, 조성욱, 조승희, 조영우, 조은주, 조은향, 조이수, 조현용, 조현우, 조현지, 조혜선, 지의정, 차복준, 채일, 채희석, 최대규, 최삼열, 최성두, 최영, 최은정, 최종빈, 최한민, 최혜경, 추명순, 추진연, 표민호, 하성만, 하현진, 한미영, 한신영, 한화진, 한희수, 허선아, 허연, 허현, 홍구화, 홍정석, 홍종인, 홍판석, 황기철, 황도용, 황상준, 황성연, 황세환, 황의찬, 황혜수, 1만5천 Miya Toshiko, 김선화, 김준원, 박정호, 2만 강연정, 강윤관, 구준호, 김보경, 김용식, 김인수, 김정욱, 김태진, 박기모, 박혜일, 박홍식, 박은석, 송찬호, 안선자, 양희석, 오성수, 우시정, 유경상, 이건, 이기서, 이연우, 장인석, 정훈, 조주영, 채기헌, 최현중, 한동빈, 허정도, 황예스더, 2만5천 한윤식, 3만 강진구, 고세일, 김경민, 김대인, 김두환, 김방용, 김예원, 김용봉, 류동규, 문준호, 박신현, 박종국, 배덕만, 서성록, 손화철, 송인규, 송태현, 신혜경, 이근호, 이은실, 임성규, 전상홍, 정민, 최동진, 최용준, 추태하, 하재희, 황영철, 황정진, 황혜원, 4만 문석은, 우병훈, 5만 강다열, 김영주, 김중우, 김태훈, 김택호, 손정영, 양승훈, 윤석찬, 이대경, 이미경, 이상민, 전희경, 정은애, 조득정, 조창희, 황준용, 6만 김상아, 김성원, 남규열, 석종준, 송종철, 정유하, 조경미, 최성진, 7만 최태연, 10만 김미영, 박영주, 손봉호, 신국원, 장수영, 정점연, 12만 김민철, 박문석, 15만 최현일,

계 7,106,000원

기관후원

5만 고양제일교회(VIEW후원), 고재교회, 다은공동체교회, 새연약교회, 일원교회, 10만 강남교회, 개봉교회, 계산제일교회, 남서울은혜교회, 더세움교회, 로고스교회, 상대원침례교회, 새로남교회, 서울영동교회, 성덕교회, 성의교회, 예성교회, 중앙제일교회, 천안중앙장로교회, 20만 금성교회, 남서울교회, 삼일교회, 수영로교회, 30만 100주년기념교회,

계 2,750,000원

전체 9,856,000원

회원후원

(2023년 6월)

3천5백 생명의강, 5천 강대웅, 강연희, 공승건, 광도명, 구성덕, 권지연, 김경희, 김기웅, 김기현, 김대웅, 김봉현, 김상욱, 김셋별, 김성권, 김성욱, 김성찬, 김성호, 김승택, 김정명, 김정성, 김정영, 김태영, 김형근, 김홍영, 김희원, 노승욱, 박광재, 박해조, 범경철, 손영경, 손영일, 송시섭, 신종철, 오경숙, 유종열, 이경미, 이기훈, 이길수, 이덕재, 이수인, 이원제, 이인수, 이종혁, 이지영, 이향숙, 임소연, 임형준, 장현일, 장현정, 전보규, 전은경, 조성진, 지경순, 진성자, 최원길, 하태실, 한배선, 홍승기, 7천5백 강찬진, 박상근, 방선기, 손화정, 이경우, 이은순, 전영식, 진영규, 1만 강연정, 강은정, 강혜영, 고길현, 고용재, 고철웅, 권경호, 기민석, 김원평, 김경진, 김경호, 김광태, 김규욱, 김남진, 김농우, 김도형, 김동연, 김민성, 김병국, 김병재, 김병철, 김봉수, 김보애, 김상범, 김상욱, 김셋별, 김성규, 김성인, 김성진, 김세경, 김수빈, 김수진, 김수홍, 김신정, 김아람, 김아름, 김연진, 김영규, 김영숙, 김영용, 김영호, 김용석, 김유니스, 김윤권, 김은덕, 김은태, 김재완, 김재정, 김정준, 김정철, 김정보, 김종일, 김종철, 김좌남, 김주영, 김지근, 김진성, 김철수, 김태룡, 김혁, 김현정, 김혜정, 김홍빈, 김화선, 남선우, 라영환, 류지호, 류진호, 류현모, 류화원, 모상근, 모아론, 박능안, 박동현, 박상희, 박승호, 박시운, 박안나, 박원근, 박준우, 박준모, 박지현, 박진규, 박현민, 박혜경, 박희주, 배아론, 배지연, 백경은, 백요한, 백은석, 부천평안교회, 빛과소금교회, 사호행, 서화진, 성기진, 성영은, 소진희, 손하은, 손현탁, 송아영, 송은희, 송철호, 신성만, 신찬용, 신현정, 신현주, 신호기, 심은희, 안병일, 안석, 안성희, 안승범, 양성근, 양성철, 양승우, 양행모, 양영태, 연혜민, 엄동한, 오민용, 오성호, 오익석, 오주희, 오지석, 유건호, 유기남, 유상원, 이상한, 유승민, 유영준, 유재은, 유해무, 윤상현, 윤숙자, 윤영배, 윤재림, 윤태형, 윤현준, 윤혜림, 이강, 이경직, 이길형, 이다니엘, 이명동, 이명복, 이명진, 이명현, 이병수, 이병주, 이봉근, 이상수, 이상진, 이상희, 이선경, 이선복, 이성근, 이성미, 이성수, 이세정, 이수연, 이순진, 이승업, 이시영, 이아름, 이연규, 이연희, 이영미, 이요한, 이우훈, 이원도, 이원준, 이윤석, 이윤재, 이윤택, 이윤희, 이은미, 이정기, 이정나, 이정욱, 이정일, 이종철, 이종섭, 이지원, 이진희, 이창훈, 이혜리, 이행로, 이희진, 임동진, 임상희, 임수복, 임지연, 임춘택, 장경근, 장승기, 장승화, 장은혜(양종태), 장인숙, 장창수, 장태준, 전명희, 전성규, 정다은, 정동관, 정봉현, 정선경, 정영수, 정용수, 정재섭, 정희원, 제양규, 조경덕, 조명자, 조미연, 조성국, 조성근, 조성욱, 조승희, 조영우, 조은주, 조은향, 조이수, 조주영, 조현용, 조현우, 조현지, 조혜선, 지의정, 차복준, 채일, 채희석, 최대규, 최대우, 최삼열, 최성두, 최영, 최은정, 최종빈, 최한민, 최혜경, 추명순, 추진연, 표민호, 하성만, 하현진, 한미영, 한신영, 한화진, 한희수, 허선아, 허연, 허현, 홍구화, 홍정석, 홍종인, 홍판석, 황기철, 황도용, 황상준, 황성연, 황세환, 황예스더, 황의찬, 황혜수, 1만5천 Miya Toshiko, 김선화, 김준원, 박정호, 백은은, 2만 구준호, 김보경, 김용식, 김인수, 김정욱, 김태진, 김태진, 김기모, 박홍식, 송찬호, 안선자, 오성수, 우시정, 유경상, 이건, 이기서, 이연우, 장인석, 정훈, 채기헌, 최현중, 허정도, 황예정, 2만5천 한윤식, 3만 고세일, 김경민, 김대인, 김두환, 김방용, 김예원, 김용봉, 남민영, 류동규, 문준호, 박신현, 박종국, 배덕만, 서성록, 손화철, 송인규, 송태현, 신혜경, 이근호, 이은실, 임성규, 전상홍, 정민, 최동진, 최용준, 추태하, 하재희, 황영철, 황정진, 황혜원, 4만 문석은, 우병훈, 5만 강다열, 김영주, 김중우, 김태훈, 김택호, 손정영, 양승훈, 윤석찬, 이대경, 이상민, 전희경, 정은애, 조득정, 황준용, 6만 석종준, 송종철, 7만 노은석, 최현식, 9만 이주은, 10만 박영주, 손봉호, 신국원, 장수영, 정점연, 12만 김기홍, 김민철, 김정보, 김주영, 박문석, 서너영, 15만 최현일,

계 7,138,500원

기관후원

5만 고양제일교회(VIEW후원), 다은공동체교회, 새연약교회, 일원교회, 10만 강남교회, 개봉교회, 계산제일교회, 금성교회, 남서울은혜교회, 더세움교회, 상대원침례교회, 새로남교회, 서울영동교회, 성덕교회, 성의교회, 예성교회, 중앙제일교회, 천안중앙장로교회, 20만 남서울교회, 삼일교회, 수영로교회, 예수향남교회, 흰돌교회, 30만 100주년기념교회, 100만 새로남교회(학회 논문상 후원)

계 3,900,000원

전체 11,038,500원

* 학회 등록비는 학회행사수입으로 후원명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귀한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후원계좌
국민은행 602-01-0667-971 (예금주: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편집위원 소개

발행인	손봉호	서울대 명예교수
편집장	신국원	충신대 명예교수, 이사장
편집위원	김대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서울대 Ph.D, 실행위원
	김반석	서울대 사회학과 석사 졸업, 도쿄대 인문사회계연구과 박사과정
	김유준	서울 주빌리교회 담임목사, 교회사, 연세대 Ph.D, 연세대 연구교수, 캠퍼스 사역전문가
	김혜정	도서출판 CUP 대표, 실행위원
	문준호	코아시아옵틱스 연구위원, 물리학, 카이스트 Ph.D, 실행위원
	박동열	서울대 교수, 언어학, 파리소르본대학교 Ph.D, 실행위원장
	박영주	미드웨스턴 신학대학 교수, 교육학, 컬럼비아 인터내셔널 대학교, Ph.D, 이사
	박진규	서울여대 교수, 미디어와 문화학, 콜로라도대, Ph.D, 실행위원
	박흥식	서울대 교수, 서양사, 괴팅엔대 Ph.D, 前 100주년기념교회 양화진문화원장
	석종준	서울대 캠퍼스선교사, 조직신학, 침신대 Ph.D, 기획위원장
	양성만	우석대 교수, 서양철학, 고려대 Ph.D, 이사
	윤현준	숭실대 교수, 기계공학, 서울대 Ph.D, 실행위원
	이병주	기독교법률가회(CLF) 대표, 변호사, 하버드대 로스쿨 석사, 실행위원
	이상민	번역가, 교육학, 서울대 Ph.D, 실행위원
	장수영	포항공대 교수, 적정기술학, 미시간대 Ph.D, 이사
	전명희	한동대 교수, 사회복지학, 연세대 Ph.D, 정회원
	조성표	경북대 교수, 재무회계학, 연세대 Ph.D, 이사
최태연	백석대 교수, 철학, 베를린 자유대 Ph.D, 이사	
최현일	샘병원 의사, 연세대 Ph.D, 이사	
추태화	이레문화연구소장, 문학, 아우그스부르크대 Ph.D, 정회원	
황영철	수원 성의교회 담임 목사, 신약학, 영국 서리대 Ph. D, 정회원	
편집실무자	석종준	사무국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후원회원 신청하기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세요. 카카오톡 : ID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메일 : info@worldview.or.kr / 후원신청은 홈페이지로도 가능합니다. www.worldview.or.kr

신청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이메일
주소	

후원금액 및 방법 선택

후원금액	<input type="checkbox"/> 1만원	<input type="checkbox"/> 2만원	<input type="checkbox"/> 3만원	<input type="checkbox"/> 5만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원)
후원방법	<input type="checkbox"/> 매월 CMS 자동이체	<input type="checkbox"/> 매월 직접 입금	<input type="checkbox"/> 연후원금(12개월 분) 일시 납부		

CMS 신청자만 기록해주세요. * 신청자와 예금주가 다른 경우, 필히 예금주의 연락 가능한 휴대폰 번호를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	이체일	<input type="checkbox"/> 25일	<input type="checkbox"/> 30일
예금주와의 관계	예금주 휴대전화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생년월일 / 사업자(고유)번호			

아래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동의를 잘 읽고 **동의함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자동이체 신청이 완료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 CMS 출금이체 및 휴대전화 합산 청구를 통한 요금 수납
- 수집항목 (개인정보) : 성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 이용 동의일 부터 CMS 출금이체 및 휴대전화 합산청구 종료일(해지일)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동의함** **동의안함** (고유식별정보) **동의함** **동의안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씨엠에스코리아**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효성에프엠에스 이지스엔터프라이즈(주)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CMS프로그램 제공, CMS출금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동의 확인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CMS출금이체 및 휴대전화 합산청구로 출금동의 확인 목적을 달성할 때 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에 대해 수납기관이 **씨엠에스코리아**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효성에프엠에스 이지스엔터프라이즈(주)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 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안함**

[출금이체 동의여부 사실 통지 안내]

CMS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고객님의 (은행 등 금융회사 및 이용기관보유) 연락처 정보를 활용하여 문자메시지로 고객님의 출금이체 동의여부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 결제정보제공자 :

(인) 또는 서명

(예금주 또는 가입자)

* 신청인과 결제정보제공자(예금주 또는 가입자)가 다른 경우, 반드시 결제정보 제공자(예금주 또는 가입자)의 서명을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앙과 학문> Faith & Scholarsh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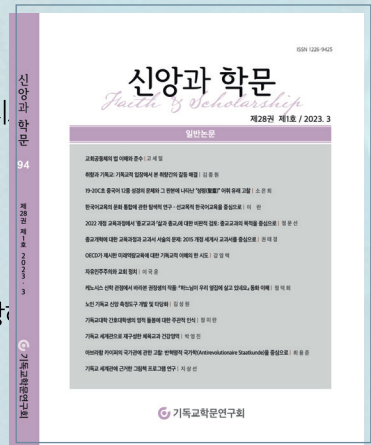
논문 투고 안내

<신앙과 학문>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성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앙과 학문>에 많은 관심과 투고를 부탁드립니다.

2023년 9월호(28권 3호) 투고 마감일은 7월 31일입니다.

- <신앙과 학문>은 한국연구재단(KCI) 등재 학술지입니다.
- '기독교학문연구회'에서 1996년 이래 발행하고 있으며 '신앙과 일반학문'의 통섭을 지향하는 국내 유일의 등재학술지. 다양한 학제간 연구 논문을 모집합니다.
-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정회원은 누구든지 투고할 수 있습니다.
- 매년 3월 31일, 6월 30일, 9월 31일, 12월 31일 연 4회 발행. 원고 마감은 각호 발행일 약 60일 전입니다.
(각호 투고 마감일: 1월 31일,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
- 2023년 7월 1일자로 개정된 논문투고 규정을 참고하십시오.

*투고 규정 9.(2) 국문 참고문헌 영문병기 → 규정 삭제
*편집 위원회 규정 제1장, 총칙 제3조 (2) 원고마감일 → 50일에서 60일로 변경



상 세 안 내.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홈페이지
(www.worldview.or.kr) '기독교학문연구회' 항목을 클릭하여 참고하십시오.
일 반 문 의. gihakyeon@gmail.com(사무국, 학회) 02-754-8004
학술지문의. faithscholar@naver.com(투고, 심사) 02-3272-4967

*<신앙과 학문>은 한국연구재단(KCI) 윤리규정을 준수합니다.